



# K-공감

한눈에 보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미래·생존 걸린 '4+1' 개혁으로 가는 길  
내 살림 퍼주는 내년 나라살림은?  
조용한 시골에 수제버거집? K-농촌에 산다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의 또다른 도전

## 추석 민생도 금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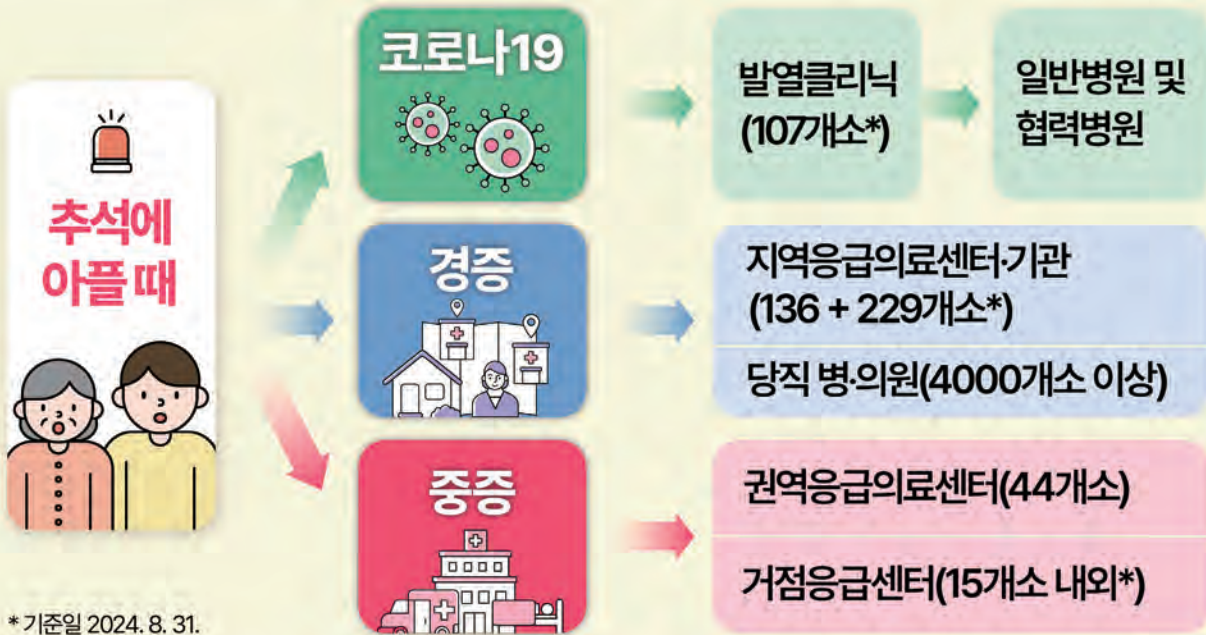
성수품 17만 톤 공급  
최대 60% 할인  
소상공·중기에 43조 공급  
숙박쿠폰 50만 장  
⋮



#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



2024. 09. 03.  
보건복지부



## Q. 경증·중증 여부 판단은?

A. 1차적으로 본인이, 2차적으로 **의료진이 KTAS(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

응급의료기관  
당직 병의원

\*\*

최우선순위 매우 중증	2순위 중증	3순위 중증의심	4순위 경증	5순위 비응급
즉각 처치 필요	빠른 치료 필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	1~2시간 내 처치 등 요구 상태	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심장마비, 무호흡 등	심근경색, 뇌출혈 등	호흡곤란, 출혈 동반 설사 등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

## Q. 119를 이용하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바로 갈 수 있나요?

A. 아니요, 119를 이용하셔도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안내받습니다.

대형병원을 고집해 가더라도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 Q. 명절 연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은?

A.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앱, ☎ 119, 129, 120에서!



더 공감

## 엄마가 남긴 마법의 지우개

엄마의 수의는 참 예뻐다. 분홍색 꽃무늬 누빔으로 만든 수의는 모자가 달렸고 양옆에는 우아한 레이스가 날개처럼 붙어 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수의다. 증평에서 평생 양장점을 하며 억척스럽게 오남매를 키웠던 엄마는 당신의 마지막 옷까지 직접 만드셨다.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의 수의를 보며 나는 감탄했다.

‘그래, 홍순희 여사는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창의적인 여자였지.’

평생 재봉 일을 하느라 관절이 다 망가져 13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와중에도 엄마는 매일 10분씩 일어나 자신의 수의를 짓고 자녀들의 옷을 만들었다. 고통스러운 통증과 싸우면서도 엄마는 88세까지 장하게 버텨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엄마가 떠난 집을 정리하러 증평 집에 들렀을 때 우리 오남매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각자의 이름이 써 있는 5권의 노트였다.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책 한 권 분량의 글이 가득 써져 있는 노트였다. 세상에 남겨질 머리 희끗한 자식들을 위해 빼뼉빼뼉한 글씨로 엄마의 당부와 위로, 소망과 기도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 수많은 문장 가운데 나는 잊을 수 없는 구절을 발견했다.

‘나는 오늘도 어제의 내 마음에 일어난 두려움을 지우개로 지운다.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으로 못된 걸 쓴다. 그걸 지우지 않으면 어떤지 아니? 말한 대로 살게 된다. ‘불안해’ 라고 쓰면 불안하게 살고 ‘나 왜 쓸모없지?’ 라고 쓰면 쓸모없게 살더라. 그래서 매일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네 마음의 지우개가 필요하다. 너희도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써라. 남이 잘못 말한 것, 네가 잘못 말한 것 싹 다 지워라. 그리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해라.’

이 글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돌아가실 때의 홍순희 여사는 태어날 때의 홍순희도, 스무 살 때의 꽃 같던 홍순희도, 마흔에 아이 키우며 고생했던 홍순희도 아닌 자유롭고 행복했던 홍순희로 가셨다는 것을. 그걸 만든 것은 바로 엄마의 마음속 지우개였다. 엄마는 자식들에게도 그 지우개 하나를 쥐어 주고 가셨다. 나도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엄마의 지우개를 선물하고 싶다.

‘진짜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쓰는 네가 너다. 몇 번이고 지워도 되니 겁내지 말고 다시 써라.’**K**



김미경


올해 나이 딱 60이 됐지만  
라이프스타일 나이는 40대라고  
주장하는 열정만렙 강사.  
174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버이자  
3050여성들의 온라인학교 'MKYU'를  
만들어 함께 성장하는 재미에  
폭 빠져 살고 있다.



## 안동호 한가운데서 과거시험이?

퇴계 이황 사후 200여 년이 지난 1792년 정조대왕은 퇴계의 유업을 기념하고 산 넘고 물 건너 한양까지 과거를 보러오는 영남 지역 인재들을 배려해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도산별과(陶山別科)에는 7000여 명이 넘는 많은 선비들이 응시했는데 그 당시 밥 해 주고 도와주는 수행 인력까지 수천 명이 더 몰려들었다”는 것이 이동수 전 안동문화원장의 말이다.

응시자 중 3000여 명만 답안지를 냈고 합격자는 급제(及第) 2인, 진사(進士) 2인, 초시(初試) 7인, 상격(賞格) 14인이었다고 한다. 한양 밖 유일한 지방 대과인 도산별과를 기념하기 위해 정조 20년(1796년)에 단을 만들고 영의정 채제공의 글로 비문을 새겨 시사단(試士壇)을 세웠다. 1975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원위치에서 돌축대를 쌓아올린 뒤 그 위에 비각과 비를 옮겼다. 현재는 안동호의 한가운데 섬처럼 솟아 퇴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1973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됐다. 



###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9.09-22

No.771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 K-공감

**발행일** 2024년 9월 9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j.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김미경

'엄마가 남긴 마법의 지우개'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안동호 한가운데서  
과거 시험이?

06

커버스토리

##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의 또다른 도전

"나를 이기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정책 돋보기

24

지금 용산은

"국민 생명 가장 중요  
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28

알쓸정책

'서울둘레길서 길 잃어도  
걱정 마세요' 외

32

돈 되는 정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06







42

33

이 주의 키워드  
답페이크

34

이슈  
“중증·응급진료 공백 없게  
모든 지원 과감하게 추진”

42

2024 파리패럴림픽  
한계 뛰어넘은 영웅들  
메달보다 빛났다

52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54

어피티가 본 MZ 생각  
“독서, 얼마나 하고 있나요?”



58

58

기획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  
(주)로그프레스

62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다  
최동호 시인  
이중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76

66

작은 영웅들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70

옛 그림이 전하는 지혜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추석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

72

문화  
2024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주는?

74

청룡이의 정책툰  
부모님, 직장인,  
소상공인의 추석

76

여행이 있는 주말 한국관광 100선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80

독자 공감

## 추석 특집

11

추석 민생안정대책  
활기차고 안전한 명절  
물가 잡고 내수 살리고

18

국정과제 다시 보기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

36

2025 예산안  
민생활력! 미래도약!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투자

46

K-농촌에 산다  
경남 하동 고하버거 최준호 대표  
전남 구례로 농촌유학 이명우 씨 가족



한복을 차려 입은 임시현이  
K-공감 독자들에게 미리 추석  
인사를 전했다. "명절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하지만  
나름대로 즐겨보려고요.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사진 C영상미디어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 “나를 이기면 누구든 이길 수 있어 다시 국가대표 선발전! 또 뽐히면 되죠”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임시현.  
세 개의 금메달을 가뿐히 들어 올렸다. 사진 C영상미디어

‘양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열여섯 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임시현은 자신을 의심했다. 양궁에 대한 열정은 충만했으나 이때까지 이렇다 할 수상 실적 하나 없었다.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미래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인생의 조준점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걸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스물한 살, 임시현은 생의 첫 올림픽 앞에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 ‘올림픽 10연패’라는 엄청난 목표 아래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준점은 명확했다. 오로지 최고가 되는 것. 그의 화살은 목표에 정확히 ‘명중’했다.

전 세계에 한국 양궁의 저력을 보여준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이하 파리올림픽), 그 중심엔 임시현이 있었다. 그는 첫 경기였던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깨진 적 없는 불패 신화를 새로 썼고 혼성 단체전에선 “오빠만 믿고 쏘라”던 김우진과 나란히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랐다. 마치

막으로 치러진 여자 개인전. 임시현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실력을 증명하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의 대업을 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임시현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미리 준비해 간 ‘바늘구멍 세리머니’가 그 증거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두 대회 연속 3관왕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느냐’는 온라인 댓글을 봤어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해냈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올림픽 데뷔를 화려하게 마친 임시현을 재학 중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만났다. 임시현은 시종일관 여유와 당당함을 허리께에 맨 화살처럼 장착하고 있었다. 올림픽 전후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두고 ‘시현적 사고’, ‘MZ세대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그런 그도 2년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다.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때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전까지 국내 대회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이 없다. 올림픽 금메달 세 개를 목에 맨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갑자기 등장한 혜성처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근성이 엄청나다. 웬만해선 양궁  
국가대표가 못 된다. 더욱이  
양궁은 ‘감’으로 하는 운동이다.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이겨내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 선수만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임시현은 “양궁은 정적으로 보이지만 많게는 하루 500발을 쏠 만큼 훈련량이 많다”고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럼 보이는 게 당연했다. 스스로를 의심하던 불안한 사춘기 선수 시절을 거쳐 그는 어떻게 한국 양궁의 역사가 됐을까?

임시현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조차 나를 믿고 이끌어준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천재과는 따로 있고 난 이제야 때를 만난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한낮의 더위가 채 물러가지 않은 늦여름, 그는 다시 활을 들어올렸다. 2025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당장 올해 9월 말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되는 탓에 추석에도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임시현은 “(우승에) 져지 마라. 해 뜨면 마른다”는 김우진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벌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게다가 올림픽에서 대업을 이룬 직후다.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싶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측을 비껴갔다. “국가대표 선발전이에요? 또 뽐히면 되죠

뭐.” 임시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의 화살을 쏠 수 있도록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준비된 이의 자세는 과연 ‘시현’스러웠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돼 학교에 돌아온 기분이 어떤가?

학생선수로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 특히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무척 좋다. 게다가 많이들 알아봐주시니 감사하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구나 싶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임시현에게 파리올림픽은 어떻게 기억될까?

국제대회를 통해 겨뤘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올림픽에서 만나 경기를 하는 게 무척 흥미로웠다. 동시에 이렇게 간절했던 것도, 이토록 많은 부담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선수 인생에 좋은 발판이 될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여자 단체전을 꼽았다. 동료 김우



진은 올림픽 10연패는 “여자 선수들이 독해서 가능했다”고 하던데.

(미소 지으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근성이 엄청나다. 웬만해선 양궁 국가대표가 못된다. 더욱이 양궁은 ‘갑’으로 하는 운동이다. 갑이 올 때까지 계속 쏘는 수밖에 없다. 그걸 이겨내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 선수만이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훈련량이 엄청나다고 들었다.

국가대표가 되면 하루 종일 활만 쏜다고 보면 된다. 많을 땐 하루에 500발도 쏜다.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그다음 야간훈련까지 이어진다. 틈틈이 러닝과 웨이트트레이닝도 해야 한다.

정신력도 중요하지 않나? ‘양궁은 멘탈이 50%’란 얘기도 있다.

맞는 말이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멘탈코칭도 받는다. 사실 난 굉장히 겁쟁이인데 승부욕은 또 강하다. 다행히 양궁은 나만 잘하면 된다. 누구를 이기겠다는 생각 대신 그저 10점을 맞추겠다는 생각만 한다. 양궁은 자신만 이기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운동이다.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 체력이든 연습량이든 자신감이 붙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문형철 대한양궁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해까지 평범했던 임시현이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는 것을 보고 자극받은 선수가 많을 것”이라고 하더라.

수상 실적도 없었고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만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체고에 진학하면서 달라졌다. 당시 코치님은 약한 말 하는 걸 싫어하셨다. 그때부터 겁이 나도 말은 ‘해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회피하는 대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더라. 태도가 바뀌니 경기 결과도 달라졌다. 대학에 와선 경기력이 안정됐

다. 친구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를 말할 때 난 아시안게임에 나갈 거라고 얘기했다. 말을 뱉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스스로도 놀랐지만 지난해 실제로 꿈이 이뤄졌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두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힘들진 않았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설득해 양궁을 시작했다. 이후론 부모님도 지지해주셨는데 중학교에 오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성적이 안 올랐다.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서울체고 입학시험을 앞두고 이번엔 떨어지면 미련 없이 양궁을 그만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 수상 실적이 없는 학생들은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화살이 쉽게 놔지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활을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대충 쓸 수 없었던 거다. 그런데 연습기록보다 30점이나 잘 나왔다. 기적이었다. 그때 양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김제덕은 17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런 ‘천재형’ 선수들을 보며 흔들린 적은 없나?

천재를 앞서나가는 방법은 연습뿐이다.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그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겠단 확신이 생겼다. 실제로 천재를 이길 때의 느낌은 정말 짜릿하다(웃음). 난 천재적 재능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메달 안 따도 되니 부담 갖지 말고 운동해라’, ‘넌 진짜 될 놈이다’라며 믿어준 코치님, 교수님들이 계셨다. 지금 많은 걸 이루게 된 건 그분들의 덕이 크다.

천재라 생각하는 선수는 누가 있나?

정말 많다. 김제덕 선수는 당연히고 김우진 선수는 연습경기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당장 9월 말부터 시작된다.

100여 명의 여자선수 중 오직 4명만이 태극마

미리 준비해간 '바늘구멍 세리머니'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두 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를 수 있던 자신감의 소산이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크를 단다. 9월 27일부터 1차 선발전이 시작되고 이후 4차까지 약 7개월간 선발전이 계속된다. 워낙 오랜 기간 이어지다보니 그 사이 부상을 입는 선수도 있고 기권하는 선수도 생긴다. 계절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게 몸관리도 계속해야 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견뎌야 하는 과정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도 어드밴티지가 없다. 모든 선수가 밑바닥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선발 시스템이다. 하지만 덕분에 나 같은 선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들 엄청난 실력으로 무장한 덕에 승부는 한끗 차이로 갈린다.

워낙 대업을 이룬 뒤라 부담감이 크겠다.

올림픽을 앞두고 부담이란 부담은 다 느껴봐서 개의치 않는다. 또 선발되면 되지 않나. 이미 주어진 영광이고 그걸 뛰어넘는 것도 내 몫이다.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나?

여유와 긍정이 내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보려 한다.

추석은 가족과 보내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임박해 추석에도 훈련을 해야 한다. 가족들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만나고 왔다. 파리에도 온 가족이 응원을 왔지만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무 뿌듯하다', '넌 최고의 선수다'라며 정말 많이 축하해줬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강릉 카센터 주변엔 축하 플래카드도 잔뜩 걸렸더라(웃음). 가족과 함께하진 못하지만 명절 음식 먹으며 추석을 나름대로 즐겨보려 한다.

임시현을 보며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이들이 희망을 가질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야에선 무조건 1등을 해야 될 것 같았다. 힘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며 버텼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 꽃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 않나. 그 순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면 누구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스스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

매순간 경기를 즐기는 선수가 되고 싶다.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긴장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게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 순간 긴장만 하며 보내긴 너무 아깝지 않나. 늘 즐기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고 싶다. **K**

조윤 기자

##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 파리올림픽의 감동, 광주에서 이어간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국제스포츠대회 준비 경험 등을 기반으로 중국 베이징을 제치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시는 8월 26일 "2024 파리올림픽의 열기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임원 및 선수가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해 9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대회 전후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양궁연맹총회도 함께 열린다. 세계 양궁 3대 빅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세 번째다. 광주시는 "파리올림픽 이후 양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구촌 평화를 지원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 활기차고 안전한 명절

누구나 체감할 수 있게  
물가 잡고  
내수 살리고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이 풍성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휴를 활용해 내수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장바구니 물가안정이다.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700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리고 ‘금(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세 배 확대한다. 또한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 10종 전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소·돼지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햇밤·햇대추는 4.4배 늘려 공급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매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할인행사를 열고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 온누리상품권

#### 2만 원 돌려받기

전통시장에서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 지참

1인당 최대 2만 원, 기간 내 1회

sale.foodnuri.go.kr

fsale.kr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할인율 대폭 확대

전국 234개 전통시장에서 6만 7000원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상당 농할상품권을 3만 원 저렴한 7만 원에 살 수 있다. 단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유효기한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자.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은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수산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은 전통시장 배달 앱이나 온라인몰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올해 추석에는 방앗간,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8종으로 대폭 완화해서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는 태권도·요가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농축산 성수품 구매할 때

#### 최대 50% 할인받기

배추, 무,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등  
20~50% 할인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9월 18일까지

sale.foodnuri.go.kr



### 수산물 구매할 때

#### 최대 60% 할인받기

김, 명태,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30~60% 할인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쿠팡,  
11번가 등  
9월 15일까지

fsale.kr



### 성수품 할인 혜택으로 차례상 풍성하게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열어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알찬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추석 장보기에 앞서 꼼꼼하게 혜택을 챙겨보자.

정부는 추석을 맞아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을 40~6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배추·무·시금치·사과·배 등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 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 분을 더하면 할인 폭이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할인행사는 유통업체별로 행사 기관과 할인 폭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sale.foodnuri.go.kr)과 해양수산부 수산물 할인지원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행축제부터 릴레이 세일 시작

정부는 9월 동행축제를 필두로 가을 정기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매월 이어간다. 이벤트 기간에 무이자 할부(최대 6개월) 및 제휴 할인·캐시백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문화관광축제와 체험행사 등이 함께 열린다. 또한 9월 18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00여 개 백년소상공인과 19개 골목상권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50여 개 제품에 대해 2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 1300여 개 백년가게에서 NH농협 개인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9월 동행축제'가 8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갖고 한 달간의 행사에 들어갔다. 하노이 롯데몰 1층에 자리한 동행축제 참여 소상공인 제품의 팝업스토어 모습. 사진: 중소기업부

<p><b>동행축제</b> 민간기업·정부·지자체 판촉행사 진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전 개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 <b>8월 28일~9월 28일</b></p>	<p><b>가을철 정기세일</b> 뷰티·패션·잡화 등 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및 공연·전시 병행 백화점·대형마트 등 전국 단위로 개최 <b>9월 말~10월 초</b></p>	<p><b>코리아세일페스타</b> 대·중·소 유통, 제조 및 서비스 기업 등 참여, 예년 대비 외식·레저·교육·문화분야 참여 확대 <b>11월 9~30일</b></p>	<p><b>12월 동행축제</b> 민간기업·정부·지자체 등 판촉행사 진행 <b>12월 중</b></p> 
--	--	---	---

자료: 중소기업부

### 민생선물세트로 정 나누기

정부는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공급한다. 한우·쌀·쌀가공식품·전복·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는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사과와 배로 구성된 실속 선물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9월 18일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우수 제품으로 구성한 추석 선물세트 할인 기획전이 열린다. 식품기업 140개 사의 1300여 개 제품을 최대 59%까지 싸게 판매한다.

### 업체별 할인행사도 다양

정부지원 외에도 업체 자체별로 할인행사가 준비돼 있다. 축산물은 한우·한돈 자조금과 업체 자체 할인을 통해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통해 한우 정육과 구이류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삼겹살과 목심 등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임산물은 온라인 특별기획전과 네이버·우체국 쇼핑몰 등 브랜드관 및 전국 12개 직거래 장터에서 최대 30% 할인해준다.

### 민생선물세트로 정 나누기

한우, 쌀, 전복, 갈치 등 알찬 구성  
**10~50% 할인**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  
9월 9일까지

 nonghyupmall.com



## 숙박쿠폰 활용법

**발급기간** 8월 27일(화)~9월 29일(일)

**입실기간** 9월 9일(월)~10월 13일(일)

**사용지역**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할인혜택**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0000원 ↓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0000원 ↓

### 발급 가능 온라인 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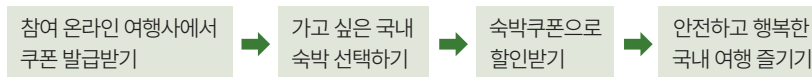
넥스트어, 떠나요닷컴, 마이리얼트립, 쏘카,  
야놀자, 여기어때, 옥션, 인터파크, 제주닷컴,  
지마켓, 카모아, 카카오톡 예약하기, 하나투어,  
호텔엔조이, 11번가 등

\*상황에 따라 참여사 등  
일부 내용 변동 가능

## 숙박비 걱정 없이 국내 여행 떠나자!

추석 연휴에 국내 여행을 떠난다면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을 잘 활용해보자.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한다. 숙박쿠폰은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발급된 할인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실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과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용방법



## 전기차 안전하고 편리하게!

최근 인천 등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명절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연휴 전에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내린다.

주요 전기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등에서는 전기차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이어가고 추석맞이 차량 성능 무상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공항 주차비 면제

추석 때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 이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료와 주차비 면제를 지원한다.

먼저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KTX와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 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 이용 시 50% 할인한다. 9월 14일부터 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교통	도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철도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인구 감소지역 여행상품 50% 할인
	항공	국내선 이용객 대상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선박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문화 휴양	신규 개방	청와대·궁 야간 개장,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 최초 개통(9월)
	무료 개방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국립공원 주차요금 면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방문하고 경증환자는 진료 가능한 4000곳의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하자. 당직 병·의원 및 발열클리닉 확인은 '이젠(E-Gen)'의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	➔	발열클리닉 107곳	➔	일반병원 및 협력병원
경증	➔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136+229곳) 당직 병·의원(4000곳 이상)		
중증	➔	권역응급의료센터(44곳) 거점응급센터(15곳 내외)		

자료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기간 4000곳 당직 병·의원 운영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한다.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치료한다.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평년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세운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젠(E-Gen)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병·의원, 응급실, 약국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등 실시간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e-gen.or.kr)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의 실시간 운영 정보는 물론 검색 기능인 '내 손안의 응급실' 메뉴를 통해 주변 응급실의 진료 과목과 병상 여유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기본 응급처치 요령'과 곤충에 물리거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등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이 영상과 만화 등으로 안내돼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실시간 도로상황·우회도로 1333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2504

### 고장·사고 신고는?

가스 1544-4500  
전기 1588-7500  
수도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 상담 129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경찰청 112

### 정부 민원상담은?

국민콜 110



자료 관계부처 합동

?



### 전통연희 한마당 '휘영청 둥근 달'

국립국악원은 추석을 맞아 특별공연 '휘영청 둥근 달'을 펼친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궁중 행진음악인 '대취타'로 웅장하게 문을 연다. 민속악단이 '길놀이'로 관객들의 만복을 기원하며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풍년을 축하하는 궁중음악 '경풍년'으로 풍성한 명절의 여유를 관객과 나눈다. 추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강강술래'도 이어진다. 공연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린다. 공연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 추 석 연 휴

### 은 가족이 함께하는 박물관 문화체험(9월 13~16일, 18일)

기관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2024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 민속놀이, 버블쇼, 문화유산자식 만들기 등
국립광주박물관	만들기 체험 및 특별 공연 등 한가위 행사
국립전주박물관	민속놀이, 사물놀이, 추억의 놀이 놀이마당 오감
국립대구박물관	전통 문화체험, 민속놀이
국립부여박물관	2024 한가위 어울마당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국립진주박물관	민속놀이, 문화유산 퍼즐체험 임진왜란 연계체험, 훈련도감 군영체험
국립청주박물관	꿀호박송편, 자개 키링 만들기 체험 소원엽서 이벤트, 추석 연계 온라인 이벤트
국립김해박물관	달토끼 모루 인형 만들기, 굿즈 나눔 이벤트
국립춘천박물관	문화공연, 선물 증정, 소원 쓰기, 민속놀이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 강원 순화전
국립나주박물관	민속놀이 체험 및 체험 사진 SNS 이벤트
국립익산박물관	소원 엽서, 민속놀이, 포토존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추석 연휴 국립현대미술관 전관 무료관람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경기 파주)	'한가위를 '힘' 하게' 한가위배 씨름대회 등 체험, 공연, 문화행사 운영(서울) 문화행사 체험, 포토존 이벤트 등 운영(파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특별전 '석탄시대' 특별전 '그대는 아직도 여기에'
국립한글박물관	연극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기획전시 '사투리는 못 참지!'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관 나들이는 어때?

추석 연휴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과학과 민속놀이가 만나는 과학관으로 떠나보자.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으며 가족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은 민속놀이와 레트로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획특별전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도 진행 중이다. 에디슨이 발명한 진품인 전구로 빛을 밝히고 축음기로 음악을 감상하고 영상기로 흑백영화를 보는 등 100년 전 에디슨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에 가면 활쏘기와 투호, 딱지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스포츠 속 과학원리를 알아보는 특별전 '아우레디?(Are You Ready?): 과학으로 보는 스포츠'도 열리고 있으니 놓치지 말 것.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국립광주과학관으로 가자. 별빛천문대 1.2m 대형망원경으로 보름달을 관측해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전 연령 관람객의 몰입을 위한 인터랙티브 체험전 '놀이의 탐구'를 마련했다. 놀이와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별꿀: 왜 이렇게 생겼어?' 특별전을 연다. 생소한 고대 생물부터 육지·바다·하늘에서 활동하는 생물까지 다양한 형태에 관한 과학적 해석을 소개한다. 추석 당일은 휴관.



사진 국립극단



### 고전의 귀환 '변강쇠 점 찍고 용녀'

창극의 역사를 새롭게 쓴 '변강쇠 점 찍고 용녀'가 초연 1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돌아온다.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을 재창작한 작품이다. 극본과 연출을 맡은 고선웅 감독은 변강쇠에게만 맞춰졌던 시선에 '점'을 찍고 용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2014년 초연 이래 국내외 16개 도시에서 8년 연속 공연해 누적 횟수 100회를 돌파했다.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공연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진행된다.

## 뭐 하고 놀까?

### 영화



**베테랑2**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와 강력범죄수사대 막내 박선우 형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다. 2015년 개봉한 '베테랑'의 속편으로 전작에 이어 류승완 감독과 황정민 배우가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정해인 배우가 합류하며 화제를 모았다. 9월 13일 개봉.

**안녕, 할부지**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중국으로의 반환이 결정된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3개월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선물로 찾아온 만남과 예정된 이별, 헤어짐을 알기에 매 순간 진심이었던 푸바오와 '강바오' 강철원 사육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9월 4일 개봉.


**비틀쥬스 비틀쥬스** 유령과 대화하는 영매 리디아와 그의 10대 딸이 시골에 내려간 이후 악동 유령 '비틀쥬스'를 소환하며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그렸다. 팀 버튼 감독이 전작 '비틀쥬스'에 이어 무려 36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이다. 9월 4일 개봉.

### 축제

#### 문학의 향기로 가득한 봉평 '평창효석문화제'

추석 연휴 가을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강원 평창으로 떠나보자. 마침 가을 서정의 극치라는 평창효석문화제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평창군 봉평면 이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봉평은 가산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다. 이효석 생가터, 물레방앗간, 충주집 등을 둘러보고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밭을 거닐다보면 마치 소설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

축제는 '평창에서 누리는 지적 사치, 문학과 미식'을 슬로건으로 6개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셀럽들의 책 읽기,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학 산책, 송일봉 작가와 함께하는 장돌뱅이길, 이효석 문학 포럼, 효석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문학의 가치를 살린 특별 프로그램이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평창효석문화제 누리집(hyoseok.com)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33)335-2323 

서경리 기자



사진 평창군청

## 연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2024.8.29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3.26

## 의료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2024.2.5

## 교육

“공정과 상식의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3.10.31

## 노동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년 신년사 2024.1.1

## 저출생

#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 “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연금

###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

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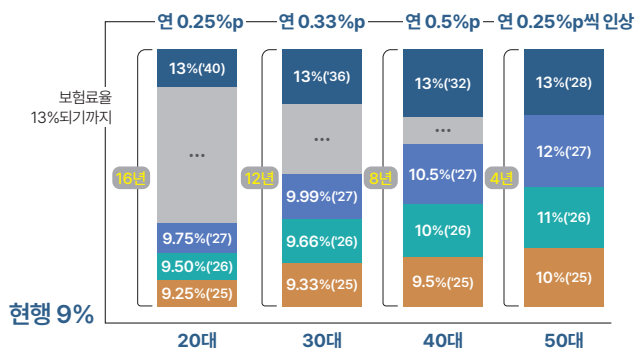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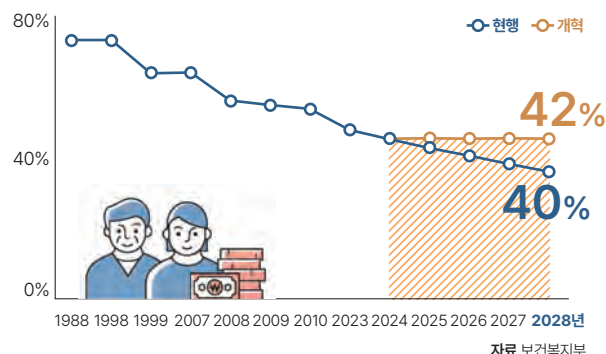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2%



2023.03.31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2023.10.30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심의·발표

2024.04.29  
연금개혁 추진단 출범

2024.08.29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3대 원칙 발표

2024.09.04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 의료

##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

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뀌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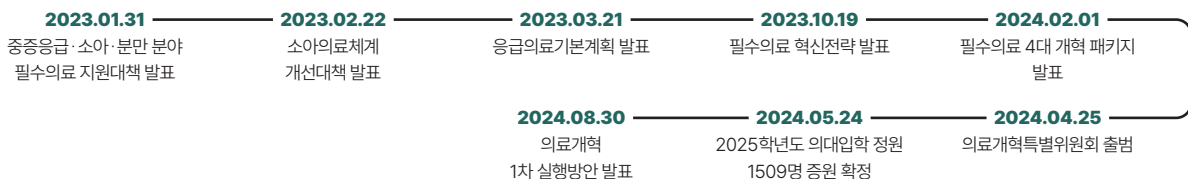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의료개혁 추진방향

		2024년 8500억원	2025년 2조 원	국가재정(5년간) 10조 원	건강보험(5년간) 10조 원+α
1	필수의료 인력 국가책임 강화	280억원	7843억원	4조 원	응급, 심뇌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 5조 원 + α
2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2349억원	4957억원	2조 5000억원	소아, 분만, 지역 등 필수의료 유지 3조 원 + α
3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	3869억원	4508억원	2조 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 2조 원 + α
4	지역·필수의료 혁신 연구 확대	1990억원	2711억원	1조 500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 교육

###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

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교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추진 로드맵

	준비 (2023·2024년)	도입 (2025년)	확산 (2026년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준비 지원	초3·4, 중1, 고1 적용	2026년 초5·6, 중2, 고2 2027년 중3·고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데이터 표준 제공	초3·4, 중1, 고, 영어·수학·정보 교과 등 적용	2026년 초5·6, 중2 2027년 중3 교과 확대
교원	터치(T.O.U.C.H.) 교원* 2024년 800명	터치 교원 1500명	2026년 터치 교원 2000명
디지털 인프라	디바이스 보급·점검	초 3·4, 중1, 고1 1인 1디바이스	2026년 초 5·6, 중2, 고 2 2027년 중3 1인 1디바이스

\*터치(T.O.U.C.H.) 교원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자료: 교육부

2023.01.09  
2023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023.01.30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2023.02.0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발표

2023.02.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발표

2023.04.18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 발표

2024.08.  
늘봄학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확대

2024.08.28  
2024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2024.06.28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마련

2024.02.05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2023.06.08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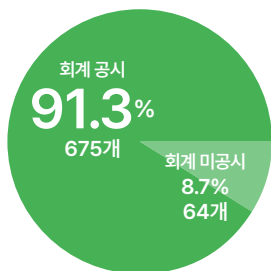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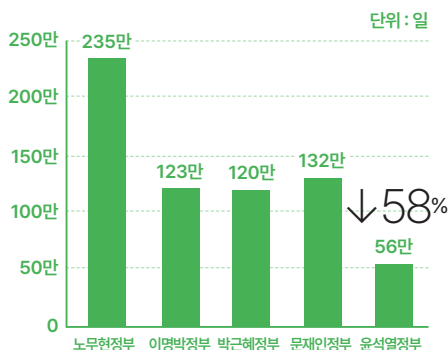
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산하조직 중 회계 공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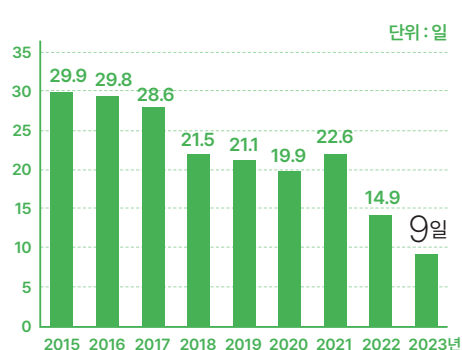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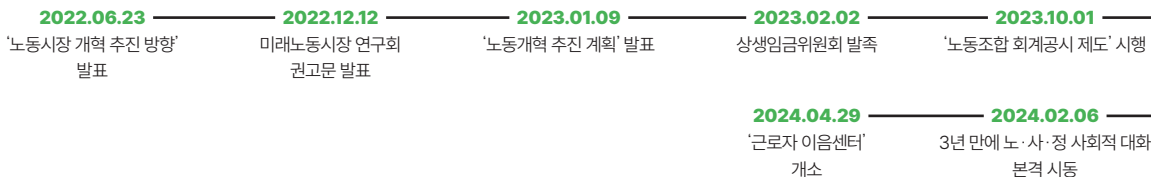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평균 지속 일수



자료: 고용노동부



## 저출생

###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 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

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 일·가정 양립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분할 횟수 2회 → 3회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 최대 월 250만 원 인상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신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 확대

#### 양육

- 2026년까지 늘봄학교 전국으로 전면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소득기준 150% → 200% 완화



#### 주거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7500만 원 → 1억 원 확대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1억 3000만 원 → 2억 원 확대
- 출산가구에 연간 12만 호 + α 주택 공급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  
부모급여 지급

2023.03.28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발표

2023.04.13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

2023.07.27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2023.08.16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개선방안 발표

2024.0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2024.01.29  
신생아 특례 대출 개시

2023.08.2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발표

## “국민 생명 가장 중요 필수 의료에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50분부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층 응급센터와 진료 현장을 1시간 20분 정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로 담당한다. 응급



윤석열 대통령이 9월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센터에선 연간 6만 명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8월 필수의료 수가 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만나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장은 “현재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병옥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고위험·중증 필수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

## 윤 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점검

### “성수품… 가격안정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았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트를 직접 끌며 시민들과 장을 봤다. 과일 판매대에서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확인한 뒤 시민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채소 판매대에서는 산지 도매 분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 작황과 가격 동향 설명을 듣고 배추를 산 시민에게 “배추 값이 좀 괜찮아졌네요”라고 물으며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8월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만 2000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9월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의 조치다.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167만 명에게 7600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달 생계급여는 앞당겨 지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늘 긴장 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관계 격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21세기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럭슨 총리와 회담에서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같이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2023

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기여를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포맷의 진전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해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상 등도 이어가기로 했다.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양국의 해상 초계기 연합훈련과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의 부산 기항 계기 훈련 실시 등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 관계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리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

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또 럽 베트남 신임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럽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 5월 22일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 고 응우옌 푸 쯡 당서기장 서거 후 8월 3일 당서기장으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럽 당서기장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윤 대통령이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1월 발표했다.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4800만 달러(600여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럼 서기장은 지난 7월 고 응우옌 푸 쯡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나가기를 바란다”며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K**

강정미 기자



# ‘서울둘레길’에서 길 잃어도 걱정 마세요

‘주소’ 부여해 신속한 위치 확인·대응 가능

정부가 서울둘레길에 주소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없었다.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 때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방관과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힘들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게 했다.

다만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의하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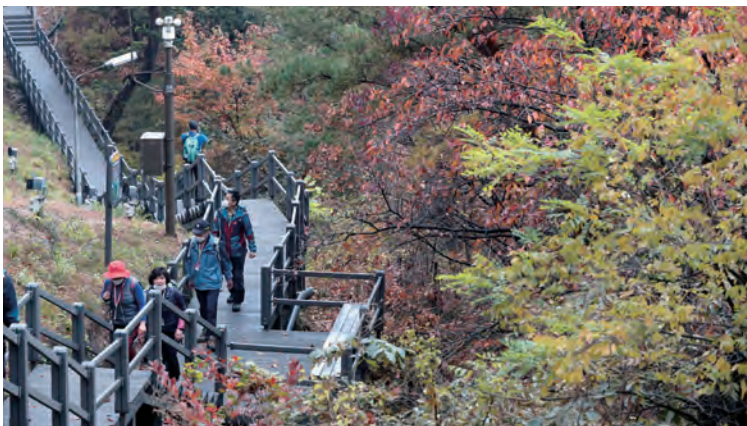
야 한다. 이번 결정은 8월 27일 개최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전체 둘레길 156.6km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다섯 자리를 넘어가게 돼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도로구간이 21개로 나뉘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코스’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숲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156.6km 서울둘레길 21개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둘레길. 사진 뉴시스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34년 만에

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

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맞이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승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해 2023년 9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



##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은 국민콜 110으로

9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뀐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전화 142-235)로 연결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피해 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잡은 결과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를 시작하고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도 함께 추진한다.

## 이재민 위로 성금 ‘의연금’ 지급상한액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인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두 배까지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영유아 양육부담 줄어든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88곳 추가 지정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한다. 이에 따라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올해 1027개 반이 확충돼 8월 기준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 중이다. 교육부는 9월 3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

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인데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고 아이사랑 문의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국공립어린이집. 사진 뉴스

##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모바일상품권도 포함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월 15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

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 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산림·병역명문가 등

9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9월 3일 산림명문가, 독립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립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로도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전북 진안의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사진 뉴스스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온 임업인 가문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립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한편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 소규모 기업도 육아휴직 맘 편히 쓰세요

앞으로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도 맘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7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

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걱정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월 26일에는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 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 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상담을 제공했다. **K** 박지현 기자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나도 모르는 불법대출?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명의도용 예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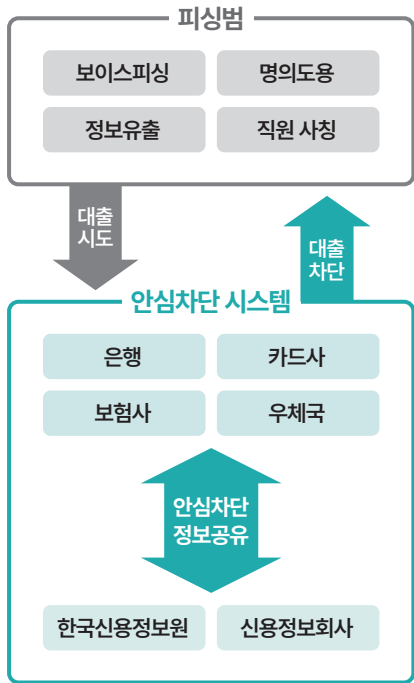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대출 등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사기범은 온라인에 '미성년자 급전 문의',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개통' 등의 광고문구를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을 넘겨받은 사기범은 부모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 이 수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어요. 8월부터 시행된 '여신(대출)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덕분이에요. 이는 불법대출 등 원치 않는 금융거래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본인 확인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돼 무척 간편해요. 이 서비스를 위해 시중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 여신전문기관,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했어요. 대부분의 금융사는 8월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개발 중인 일부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

기관에서도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다시 여신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손쉽게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거예요. 또 영업점에서는 해당 서비스 신청내역을 6개월에 한 번 문자 메시지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에요. 그러니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신청·해지 조치를 해놓으면 좋겠지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비대면 신청 및 대리인 신청(현재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또 여신거래뿐 아니라 수신거래, 즉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청소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큰 만큼 미리 꼼꼼히 대비하자고요! 

조윤 기자

# 딥페이크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다. 2023년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플랫폼 85개 채널에 올라온 영상 9만 5820건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 중 53%가 한국 국적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가장 많이 활용된 세계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인이었다.

지난 3월 불거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딥페이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61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들어진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뜻한다.


문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 미성년 가족,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영상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범죄 양상은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다.

경찰은 8월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이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위장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나눴다. 각 부처가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교육·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작부터 유포까지 발본색원 범정부가 나섰다



사진 뉴스시스

임연영 기자



## “중증·응급진료 공백 없게 모든 지원 과감하게 추진”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등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9월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응급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부 응급실에서 의료인력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 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있다.

### 경증·비응급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8월 8일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수술, 처치, 마취 행위 등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높인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에 대한 200% 가산을 이룬 시간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또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순환당직제 등을 통해 중증·응급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박 차관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치료의 시급성이 높은 중증·응급질환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 급성 복부질환, 산부인과 응급질환, 기관지 출혈 이

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와 중증전담 응급실을 운영해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KTAS 3~5에 해당하는 환자, 즉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많은 4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돼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9월 2일 브리핑에서 “작년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그 전주 대비 72% 증가했는데 경증환자 비율이 추석 전주 50.4%에서 추석 연휴 기간 60.7%로 늘었다”며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경증·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현재 50~60%인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 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1~5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증·응급환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는 15~2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AS 3부터는 중등증, 즉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보지 않는다.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응급실 병실 가동률 등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 사진 뉴시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

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개혁의 네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왔다.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산하에 네 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4개월 동안 5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8월 30일 발표됐다. 여기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개선, 의

료사고 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에 대한 검토방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과 주당 평균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왜곡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한다.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한다. 인력 구조도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문의뢰체계 등 제도도 정비한다. 환자의 비용부담 구조도 재설계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올린다.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잉비급여를 관리하고 실손보험 보장도 합리화한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갖춘다.

무엇보다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K]

김효정 기자

# 민생활력! 미래도약!

##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투자

정부가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20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 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 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에 집중한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4대 투자 중점 방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K-공감'은 4대 투자 중점에 담긴 20대 핵심 과제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안내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 붓는다.  
사진은 8월 대구 북구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원(4인가구)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p><b>생계급여</b></p> <p>연 2200만 원</p> <p>➔ <b>2341</b>만 원</p>	<p><b>의료급여*</b>(건강생활유지비)</p> <p>연 7만 원</p> <p>➔ <b>14</b>만 원</p> <p><small>*1인당 연간 진료비 지원액 938만 원 (2025. 기초 1종)</small></p>	<p><b>주거급여</b>(서울 기준)</p> <p>연 632만 원</p> <p>➔ <b>654</b>만 원</p>	<p><b>교육급여</b>(고등자녀 1인 기준)</p> <p>연 73만 원</p> <p>➔ <b>77</b>만 원</p>
---	---	--	---

4대 바우처 추가 지원

<p><b>농식품 바우처</b>(신규)</p> <p>월 <b>10</b>만 원</p> <p>(4인가구)</p>	<p><b>에너지바우처</b>(평균)</p> <p>동계 <b>31만 4000</b>원</p> <p>하계 <b>5만 3000</b>원</p>	<p><b>통합문화이용권</b></p> <p>연 <b>14</b>만 원</p> <p>(1인)</p>	<p><b>스포츠강좌이용권</b></p> <p>월 <b>10만 5000</b>원</p> <p>(1인)</p>
---	---	---	--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해 3000명을 새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의 소득인정비율을 15~30%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49만 원→21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5년 만에 인상된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을 지급, 기존보다 36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최대 1241만 원 ➔ 최대 1601만 원

2024년 2025년(대보수 기준)

노인일자리

103만 개 ➔ 110만 개

2024년 2025년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

20만 5000호 ➔ 25만 2000호

2024년 2025년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된다. 임대주택 15만 2000

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유형이 다양화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한 뒤 2년간 16만 호 공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 비용부담 완화

#### 금융

전환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대환대출 금리 7% 이상 ➡ **4.5%**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 원

#### 인건비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보급  
**1만 1000**개



### 빛 축소에서 재도전까지 지원

#### 채무조정

##### 새출발자금

**40**조 원+α  
 (최대 4억 5000만 원 감면)

#### 폐업

#####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400**만 원

#### 취업 준비

##### 사전교육수당

**60**만 원

심층교육수당 월 **50**만~  
 (최대 6개월) **110**만 원

#### 구직

##### 취업자 성공수당

**190**만 원

고용주 고용촉진 장려금 월 **30**만~  
 (1년간) **60**만 원

생계형 자영업·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먼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등이 핵심이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졸업 후 보기업(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만족 시)을 대상으로 한 전용 용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더 지원받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자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인 농업직불 예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 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를 5% 인상한다.

####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

스케일업 자금	전용자금 <b>4000</b> 억 원	K-커머스로 <b>1000</b> 억 원
플랫폼 협업	e-커머스 협업 <b>3000</b> 개 (1개당 평균 1000만 원)	
매출기반 확대	온누리상품권 <b>5조 5000</b> 억 원	상권발전기금 (2곳)

## 청년에게 기회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대학생의 절반만 누리던 혜택을 75%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내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는 평균 12개월(2024년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44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해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3~6개월)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00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 국가장학금 확대

100만 명 → **150**만 명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4만 2000**명  
(연 240만 원)

#### 근로장학금 확대

14만 명 → **20**만 명

#### 경력개발·자산형성·주거 도약 뒷받침

##### 청년미래플러스(신규)

##### 산업 특화 경력개발

개인별 성장로드맵 설계,  
현직자 멘토링,  
현장훈련(OJT) 프로그램 지원

#####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대출  
(3조 3000억 원 공급)

#####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한도 상향  
**70**만 원

##### 청년월세 한시 지원

**12개월 → 24**개월  
(월 20만 원)





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일경험

4만 8000명 ➡ 5만 8000명

##### 빈일자리 채움 패키지(신규)

5만 8000명

- 훈련·취업수당 480만 4000원
- 2년 근속 장려금 480만 원
- 기술연수 3~6개월

##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일반 돌봄

##### 아이돌봄 소득요건 완화·정부지원을 확대

(소득) 기준중위 150% ➡ 200% 이하  
(지원율) 소득구간별 +5~10%포인트

##### 단기 돌봄(신규)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2주

##### 긴급 돌봄(신규)

#####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신설 65곳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됐다.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치). 현재는 1년간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사업주와 동료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 부모 맞춤돌봄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5일 ➡ 20일

#### 근로환경 유연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200만 원 ➡ 22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신설·확대

월 80만 원 ➡ 120만 원

#####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규)

월 20만 원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 더 넓은 주거공간 제공

임대 든든전세(신규)

**3**만 호

대출 신생아특례 소득요건, 우대금리 상향

- 소득요건 **2억 5000만 원**
- 추가 자녀당 **0.4%포인트**

분양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 특별공급

**4만 7000**호

##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 많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값이다. 특히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최대 납입한도(55만 원)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는 2만 3000기에 불과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

(AI) 영상·음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가 유지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도 국민 호응에 힘입어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청년·저소득으로 구분해 적립률(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던 것에 '다자녀가구 할인'을 신설한다. 2자녀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사

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 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  
**205**만 원  
(월 급여 150만 원+ 자산형성 지원 55만 원)

생활관 개선

8~10인실(공용 화장실·사위실)  
**2~4**인실  
(단독 화장실·사위실)

신형 전투피복 도입(신규)

9종 공용피복  
**4종 개인피복**  
(다기능성·경량 소재)

예비군 지원 확대(신규)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  
**4**만 원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

# 한계 뛰어넘은 영웅들 메달보다 빛났다

파리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양팔이 없는 김항태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동의 완주를 펼쳤다.  
김항태는 종합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진 뉴시스





(왼쪽) '철의 여인' 이도연 선수가 9월 4일(현지시간) 2024 파리패럴림픽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독주(타임 트라이얼) 스포츠등급 H4-5 경기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 한국 보치아의 간판 정호원 선수가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한 후 행가래 받고 있다. 사진 뉴스스

파리발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막바지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2024 제17회 파리하계패럴림픽(이하 파리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도전에 한계는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8월 29일(현지시간) 축포와 함께 시작한 파리패럴림픽은 9월 8일 폐회식까지 12일간의 열전을 이어갔다. 지체·지적장애 등이 있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종합대회인 패럴림픽은 1960년 로마에서 시작해 60년이 넘는 역사를 쓰는 중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 4000여 명의 선수가 22개 종목(양궁, 육상, 배드민턴, 시각축구, 보치아, 카누, 사이클, 승마,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펜싱, 휠체어럭비, 휠체어테니스)에서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으로 1988 서울패럴림픽 이후 역대 최대 인원이었다. 장애인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은 1988 서울 대회부터 2008 베이징 대회까지 6회 연속 패럴림픽에서 두 자릿수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2012 런던 대회 9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7개 금메달을 딴 뒤 직전 대회인 2020 도쿄 대회에선 금메달 2개에 그쳤다. 도쿄 대회 이후 유망주 발굴에 전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철차탁마했다. 그 열

정과 땀은 12일 동안 메달과 상관없이 파리 곳곳에서 새로운 감동의 드라마를 써냈다.

### 탕! 탕! 패럴림픽도 사격서 메달 명중

사격은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도 효자 종목이었다. 우선 '사격 간판' 박진호가 패럴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9월 2일 사격 R7 남자 50m 소총 3자세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50m 소총 3자세는 무릎짜(슬사), 옆드려짜(복사), 서서 짜(입사) 등 세 자세를 번갈아 취하며 50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맞히는 경기다. 박진호는 이날 본선에서 1200점 만점에 1179점(슬사 392점, 복사 394점, 입사 393점)을 쏘았다. 파리패럴림픽 본선 신기록을 작성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다.

박진호는 낙상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됐다. 큰누나의 도움으로 장애인 사격 선수로의 인생 2막을 시작했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에서 각각 3개와 4개의 금메달을 따며 맹활약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패럴림픽에서 세르비아의 라슬로 슈란지가 세웠던 기존 패럴림픽 결선 기록(453.7점)을 갈아치웠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땀다. 절치부심한 그는 파리에서 생애 첫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더니 두 번째 금메달도



1 2024 파리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 주인공 조정두 선수가 8월 29일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기뻐하고 있다. 2 '사격 간판' 박진호 선수가 9월 2일 사격 R7 남자 50m 소총 3자세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3 배드민턴 유수영(왼쪽)·정재균 조가 9월 2일 열린 시상식에서 은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 뉴시스

명중했다. 그리고 9월 5일 사격 R6 혼성 50m 소총 복사에서 3관왕까지 도전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도 사격에서 나왔다. 주인공은 조정두다. 조정두는 8월 29일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237.4점을 쏘 인도의 마니쉬 나르왈(234.9점)을 2.5점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07년 뇌척수막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증으로 척수장애인이 됐다. 7~8년을 집에서만 지내다 용기를 내 밖으로 나와 사격을 시작했다.

### 보치아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 대업

한국 '보치아'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올림픽에 한국 양궁이 있다면 패럴림픽에는 한국 보치아가 있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탄생한 스포츠로 '땅 위의 컬링'이라고도 한다. 장애등급에 따라 막대기를 입에 물거나 머리에 매달고 공을 굴려 표적구 주변으로 공을 더 많이 모으면 이기

는 경기다.

정호원은 9월 2일 남자 개인전 결승전에서 호주의 대니얼 미셸을 5대 2로 꺾고 금메달을 땀다. 이에 따라 한국 보치아는 1988 서울패럴림픽 때부터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전 세계 보치아 대표팀 중 가장 많은 금메달 수다.

정호원 개인으로는 7번째 패럴림픽 메달(금 4개·은 2개·동 1개)이다. 다시 한 번 '보치아의 전설'임을 입증했다. 그는 생후 100일이 지났을 무렵 평상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병변장애(뇌성마비)를 갖게 됐다.

### 두 팔 없이 센강 건넌 김황태, 트라이애슬론 완주

메달은 못 땀지만 그보다 더 값진 도전도 있었다. 김황태는 9월 1일 남자 트라이애슬론(스포츠등급 PTS3)에서 1시간 24분 01초 종합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두 팔이 없는 김황태는 PTS3 출전 선수 중 장애 정도가 가장 중하다. 패럴림픽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750m, 사이클 20km, 육상 5km 코스 합산 기록으로 최종 순위를 정한다. 그는 첫 종목인 수영에서 센강의 심한 유속과 싸우며 주로 배영으로 물살을 헤쳤다. 이를 악물고 헤엄쳤지만 24분 58초나 걸렸다. 1위 선수와는 13분 이상 차이가 났다. 수영으로 허벅지에 무리가 가면서 사이클과 육상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기록이 나왔다. 사이클은 35분 29초로 7위, 육상은 21분 19초로 5위였다. 그러나 그에겐 성적이 중요하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패럴림픽 무대에서 완주를 해냈기 때문이다.

김황태는 2000년 8월 전선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 양팔을 잃었다. 사고 후 1년 동안 절망에 빠져 살다가 운동에 도전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패럴림픽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31일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파리패럴림픽 양궁 여자 컴파운드 W1 양궁 대표팀 김옥금과 중국의 준결승전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도쿄 대회 이후 유망주 발굴에 전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철저타마했다. 그 열정과 땀은 12일 동안 메달과 상관없이 파리 곳곳에서 새로운 감동 드라마를 써냈다.”

출전의 꿈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김항태는 육상, 노르딕스키,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을 섭렵했다.

그러나 쉽게 꿈을 이루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부상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두 팔이 없는 선수가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등급 종목도 많지 않았다. 김항태는 파리패럴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도전이라는 심정으로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전향했다. 그는 트라이애슬론 결승선을 통과한 뒤 눈물을 흘리며 “(아내인) 김진희 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 ‘세 바퀴의 레이서’ 김용기와 ‘철의 여인’ 이도연

패럴림픽의 꿈을 이룬 김용기의 도전도 빛났다. 김용기는 9월 3일 도로사이클 남자 도로독주(타임 트라이얼) 스포츠등급 T1-2 경기에서 14.1km 코스를 29분 41초 83의 기록으로 통과했다. 장애가 더 심한 T1등급으로 팩터(장애등급에 따른 시간 조정)를 받은 김용기는 최종 기록 25분 58초 03으로 12명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김용기는 몸을 가누기 힘든 선수들이 타는 트라이-사이클을 탄다. 앞바퀴는 하나, 뒷바퀴는 2개다. 그를 ‘세 바퀴의 레이서’라 부르는 이유다. 2020 도쿄패럴림픽 티켓을 아쉽게 놓친 김용기는 적극적으로 패럴림픽 쿼터를 따내며 파리에 왔다. 트라이-사이클 한국 선수로는 첫 패럴림픽 출전의 역사를 썼다.

김용기는 출생 직후 뇌병변장애를 입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두발자전거를 배울 만큼 의지가 강했다. 20대 후반에야 검정고시를 통해 나사렛대학에 진학한 그는 재활을 위한 운동을 하다가 사이클을 접했다. 그리고 불혹이 돼 마침내 패럴림픽에 나서



1 유병훈 선수가 9월 4일 열린 육상 남자 100m T53등급 결선에서 역주하고 있다.  
2 전민재 선수가 9월 4일 여자 육상 100m T36등급 결선에서 결승선을 7위(14초 95)로 통과한 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3 김용기 선수는 9월 3일 도로사이클 남자 도로독주(타임 트라이얼) 스포츠등급 T1-2 경기에서 완주한 후 웃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게 됐다.

이도연은 9월 3일 도로사이클 여자 도로독주(타임 트라이얼) 스포츠등급 H4-5 경기에서 14.1km 코스를 28분 36초 01의 기록으로 통과해 13명 중 11위에 올랐다. 스무 살에 사고를 당해 하반신 장애가 있는 이도연은 뒤로 누운 채 팔로 페달을 굴리는 핸드사이클로 경기에 나섰다.

이도연의 별명은 ‘철의 여인’이다. 5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든 꾸준히 국내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선 노르딕 스키에 출전하기도 했다. 패럴림픽만 네 번째다. 세 딸의 응원을 받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한 그는 “딸이 임신해 내년엔 할머니가 된다. 할머니가 돼도 출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K**

박지현 기자



# K-농촌에 산다

소멸 '위기'를 '기회'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곳으로

농촌소멸 위기는 이처럼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소멸은 식량 생산 위기와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를 불러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을 어렵게 만든다. 국가적인 과제이자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켜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창업, 위케이션, 4도3촌 등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을 적용해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하에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1조 9494억 원을 농촌소멸 대응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9월 1일 밝혔다.



## 위케이션 (Worc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말한다.

##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주민등록 인구는 물론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 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아우른다.

## 관계인구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근·통학, 고향사랑기부제, 위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지역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정부는 청년 농업인과 농촌형 창업을 돕기 위해 자금과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수는 99만 9022가구로 전년(102만 300가구)보다 2.3% 감소했다.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농가인구도 208만 9000명으로 전년(216만 5000명)보다 3.5% 줄었다.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과 비교하면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도 육성한다.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수요가 없어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대량이다. 이 공간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용도로 쓰기 어려운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문화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다.


#### '4도3촌 라이프' 실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창출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작업도 이뤄진다. 일주일에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 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가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농촌의 빈집을 관광객을 위한 숙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가능한 농촌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를 지정하고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139개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배치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도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와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 협진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농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을 높인다. 

강정미 기자

(왼쪽) 서울을 떠나 전남 구례에서 농촌유학을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고 있는 고강혁 군. (오른쪽) 경남 하동에서 '고하버거'를 운영하는 최준호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이지만 이곳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다. 'K-공감'은 농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 기획의 공간인 농촌의 매력을 소개한다.

## 조용한 시골 마을에 웬 수제버거집? “준비돼 있다면 농촌이 오히려 기회”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하동읍성 아래 자리한 주성마을은 젊은 사람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40여 명 남짓한 마을 주민들은 평균 연령 75세의 어르신들이다. 그랬던 마을이 달라진 건 2020년 수제버거 전문점인 '고하버거'가 문을 열면서부터다. 충남 태안에서 수제버거집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최준호(44) 대표는 벚꽃이 한창이던 그해 봄 이 일대를 지나다가 하동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입구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미곡창고를 개조해 만든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장에서 최 대표는 직접 만든 패티와 햄버거빵(브리오슈번), 하동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버거를 판매한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3만 명 이상이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수제버거집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주성마을은 어느덧 활기 넘치는 마을로 되살아났다.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주성마을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수제버거 전문점인 '고하버거'를 연 최준호 대표. 직접 만든 패티와 햄버거빵, 하동 특산물로 만든 수제버거를 판매한다. 사진 ©영상미디어



## 하동 고하버거 최준호 대표

### 하동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서울 흥대를 시작으로 강원 양양, 전북 전주, 충남 태안 등에서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살아가는 게 좋았다. 동해와 서해, 바다 근처에서 살아보니 산이 있는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었다. 지리산 근처는 어떨까 하며 막연히 하동에 왔다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고하리를 지나게 됐다. 마침 벚꽃 시즌이었는데 마을이 정말 예뻐다. 마을 입구에 있는 폐창고를 보자마자 이곳에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 근처에 2층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 살 곳도 마련할 수 있었다.

### 외지 청년이 와서 수제버거집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프랜차이즈 햄버거도 보기 드문 시골마을이니 수제버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왜 이런 시골 중의 시골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하고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고 외지 사람이라고 경계하는 분도 있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이곳에서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직접 창고를 수리해가며 매장을 만들었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수제버거 시식회를 열었다.

### 이제는 수제버거집 덕에 마을에도 활기가 돈다.

수제버거를 맛보기 힘든 지역이다 보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창고를 개조한 매장 분위기나 주변 풍경도 좋아한다. 덕분에 마을이 북적거린다. 우리 마을에 이런 가게가 생겼다며 자랑하고 응원해주는 마을 주민들이 많아졌다. 그래도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 할까봐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마을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마을 행사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다.

### 농촌에 정착하려면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태안에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했다. 트랙터로 길을 막거나 판지를 거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내가 잘 지내려면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 도시에서 편하게 장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서울, 울산, 대구 등에서 경험해봤다. 도시에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 가격이든 아이템이든 모든 게 경쟁이다. 굳이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주성마을 입구에 자리한 '고하버거'. 사진 C영상미디어

들더라. 도시가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준비만 돼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동에서 더욱 확신하게 됐다.

### 하동에서의 삶에 만족하나?

이곳에 와서 청년의 아이콘이 됐다. 지역 상생의 사례로 꼽히면서 자문이나 강의하는 일도 많아졌다. 도시에선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곳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걸 느끼고 경험하다 보니 하동살이가 더욱 좋아졌다.

###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고하버거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하동살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 농촌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하며 농촌에 정착해도 되고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 준비 없이 농촌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농촌은 기회의 공간이 맞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경험과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

### 하동에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동공설시장에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 대부분이 70~80대인 전통시장에 일식 요리를 파는 주점을 열 생각이다. 하동에는 제대로 된 일식집이나 혼술이 가능한 가게가 없다. 수제버거처럼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을 이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더불어 침체된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성공한다면 앞으로 군 단위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K**

강정미 기자



# 농촌유학 아이 따라 온 가족이 구례로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 꿈꿔요”

‘농촌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명우(48) 씨는 2021년 12월 서울 공진초등학교 3학년 이던 아들의 학교 알림장에서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보게 됐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한 학기 이상 농촌 학교에 다니면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촌유학을 시작했고 2022년 1학기 전남지역 학교에서 유학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 씨는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아이가 자연에서 뛰어놀며 자유롭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농촌유학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바로 이거다 싶었다”고 했다.

이 씨는 곧바로 지원서를 냈고 2022년 3월부터 아들 고강혁(11) 군은 전남 구례군 광의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PD인 이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 구례로 이주했다. 처음 계획한 농촌유학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였다. 하지만 아들이 이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간을 연장하다보니 어느덧 6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던 남편 고영근(50) 씨도 구례에 내려와 세 식구는 완전체가 됐다. 이들은 이제 서울이 아닌 농촌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농촌유학이란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나?

알림장을 보기 전까지 몰랐다. 찬찬히 살펴보니 정말 좋은

기회 같았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가 한창이라 아이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 나도 일을 하며 번아웃(탈진증후군)이 온 상태였다. 농촌유학을 계기로 농촌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면 아이에게도 내게도 좋겠다 싶었다. 마음을 정하고 준비해서 구례에 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구례란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이 만나려면 KTX역이 있는 지역이어야 했다. 전남에서 농촌유학이 가능한 지역 중 구례에 KTX역이 있었다. 어릴 적 지리산 종주를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는 구례의 자연환경이 참 좋았다.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았다. 지금 아이가 다니는 광의초 운동장에선 지리산 노고단이 한눈에 들어온다. 근처엔 너른 들판이 있다. 이런 풍경을 매일 보고 느끼며 자라길 바랐다.

자연환경만 보고 학교를 선택하진 않았을 텐데.

광의초는 모집 인원이 많은 데다 농촌유학에도 적극적이었다. 학생들의 감수성을 키워주는 ‘움틀(체육)·꿈틀(진로) 프로젝트’를 통해 노고단 등반, 섬진강 벚꽃길 걷기, 나무 클라이밍, 승마, 생존수영, 곤충 관찰 수업을 한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핑·모내기 활동 프로그램도 있다. 방과후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교육환경 면에서도 만족스러웠다.

광의초에 농촌유학생은 몇 명 정도인가?



전남 구례 광의초등학교로 농촌유학을 온 고강혁 군(가운데)과 아버지 고영근 씨, 어머니 이영우 씨. 농촌유학을 계기로 세 가족은 농촌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전교생 36명 중 19명이 농촌유학생이다. 기존의 학생들과 서울, 부산 등 다양한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어우러지면서 조용했던 학교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겠다.

농촌유학은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과 농가에서 농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유학센터형’으로 나뉜다. 광의초의 경우 모두 가족체류형이다. 지금까지 총 열네 가족이 이주하면서 마을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마을 어르신, 기존 학부모들 모두 새로운 가족들이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다.

#### 농촌유학에 대한 아이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5점. 서울에선 한 반에 25명이던 동급생이 이곳에선 8명에 불과하다. 인원수가 적으니 친구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깊게 친해질 수 있고 학교에서 개인의 존재감도 크다. 학원에 가는 대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도 한다. 졸업을 이곳에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이가 먼저 제안한 거다.

#### 학부모 입장에서선 어떤가?

도시에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보다 많이 놀고 부딪히면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커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적당한 결핍도 필요하고, 농촌유학을 오면서 아이가 확실히 달라졌다. 서울에 있을 땐 쑥스러움이 많던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우며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 만족스럽다.

#### 농촌유학 기간이 꽤 길어졌다.

아이도 나도 만족하다 보니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농촌에서 살아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구례에 와 살면서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유대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학부모들과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느낀다.

#### 농촌유학을 알리는 데도 열심이다.

농촌유학을 올 때 정보가 없어 막막했다. 농촌유학을 고민하거나 오는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에 농촌유학카페를 만들었다.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한다. 농촌유학을 위한 정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앞으로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농촌유학과 구례를 비롯한 전남 농촌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 농촌유학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촌유학은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나 인구소멸 위기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 수요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유학이 지속되고 나아가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K**

강정미 기자

# 시/즈 2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 “민주화의 도시 광주 글로벌 문화 도시 AI 산업 중심 도시로”

정부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광주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의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첨단기술을 선도할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왔고 문화 도시로서 국제적인 명성도 쌓아왔다”며 “첨단기술과 문화의 힘을 융합하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세 가지 비전은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

### “2027년 AI 영재고 개교 차질 없게 챙기겠다”

광주는 AI와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도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광주 AI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갔던 일을 상기하며 “광주가 착실하게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져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구축한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 도심 곳곳을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AI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온 만큼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광주에 AI영재고를 설립해 AI 산업을 성장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AI영재고가 2027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획된 광주 AI영재고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현재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행하는 교통시스템. 신속하고 정시 운행하는 버스 운행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시스

광주는 2개의 완성차 기업과 600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는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광주는 2023년 3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 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70여 개 소부장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5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부품 기업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20억 원을 들여 특화단지 내에 2024년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자율주행 안전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 상무소각장을 시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광주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광주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말했다.

이 중 광주비엔날레는 2024년 30주년을 맞이한 대표적인 국제 문화행사다. 정부는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과 민간의 역량 있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 브랜드로 연계·홍보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2028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전시관 신축사업도 추진한다.

과거 기피시설이던 광주 상무소각장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각장 부지에 광주 대표 도서관을 신축 건립하고 기존 공장동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각 516억 원, 436억 원을 들여 광주 대표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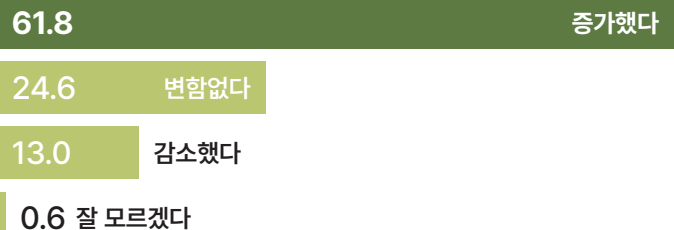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광주의 교통 인프라도 확충된다. 광주 광천권역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대형 복합쇼핑몰이 건립되고 있는 것과 관련, 쇼핑몰 개장 시기에 맞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갖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BRT 사업은 사업기간이 짧고 행정절차가 유연한 교통시스템이다. 정부는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최적의 BRT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광주에 필수의료로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광주시민이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K**

김효정 기자



## MZ세대 61.8% “독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해요” 최근 3개월 평균 5.6권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독서량이 3.9권으로 줄었다고 하죠. 반면에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의미일까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MZ세대는 어떤 독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 MZ세대 독서량 국민 평균보다 많아

최근 독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8%가 최근 몇 년간 독서량이 '증가했다'고 답변했어요. '변함없다'는 24.6%, '감소했다'는 응답은 13.0%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0.6%에 그쳤어요.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MZ세대에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도 국민 평균 독서량에 비하면 MZ세대의 독서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여요.

어피티 설문조사 결과 MZ세대의 최근 3개월간 1인당 평균 독서량은 약 5.62권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1권 이하(7.0%)', '2~3권(29.4%)', '4~5권(23.4%)', '6~9권(18.9%)', '10권 이상

책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책의 내용이나 주제

888명

책을 구입하는 가장 주된 경로는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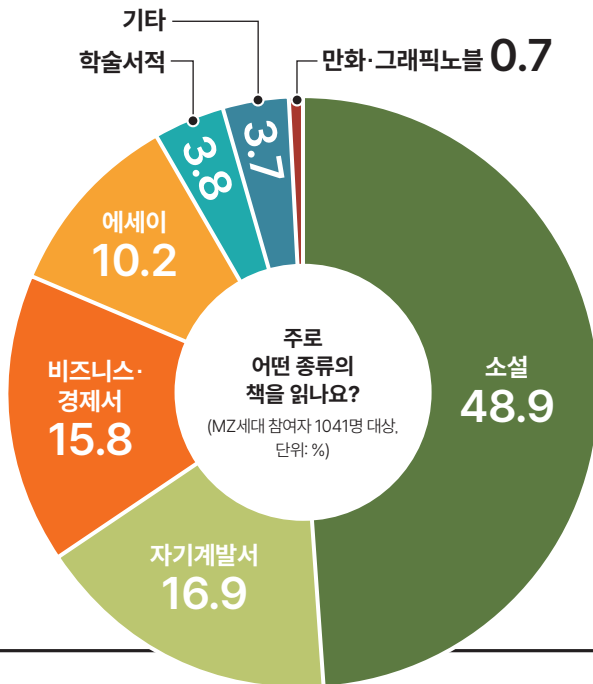
온라인 서점

689명

(19.8%)', '읽지 않음(1.5%)'으로 집계됐어요. 성인 전반의 독서량 감소와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MZ세대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어떤 책을 많이 읽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안하는 이유로는 '스마트폰 및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증가(77.6%)' 때문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는 4.5%, '독서에 대한 흥미 감소'는 12.5%로 나타나 바쁜 일상과 독서에 대한 흥미 자체가 낮아진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MZ세대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여가 및 취미 활동(657명)'과 '자기계발 및 성장(648명)'으로 나타났어요. 독서를 통해 단순히 정보를 얻기보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식 습득(476명)' 역시 중요한 독서 이유로 꼽혔어요. 반면 '스트레스 해소(267명)'와 '학업 또는 업무 관련(118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



어요. MZ세대는 독서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독서문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 웹툰·웹소설? '독서가 아니다' 63.4%

MZ세대는 어떤 책을 많이 읽을까요? 소설이 48.9%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다음으로는 '자기계발서(16.9%)', '비즈니스·경제서(15.8%)'였어요. '에세이(10.2%)'와 '학술서적(3.8%)'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어요.

주목할 만한 결과도 있었어요. 웹툰이나 웹소설을 읽는 것을 독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6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거든요. 소설이 독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요.

책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눈에 띄는 결과는 단연 '책의 내용이나 주제'였어요. 888명이 선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거든요. 독자들은 디자인이나 마케팅 요소보다 책의 내용 자체를 중시하고 있었어요. 2위와 3위는 각각 '작가(368명)'와 '추천사 또는 리뷰(363명)'였는데 작가의 이력이나 평판이 여전히 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알

어퍼티가 **1041**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8월 23~29일 어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Q 독서,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간 독서량에 변화가 있었나요?

- ① 증가했다 ② 변함없다 ③ 감소했다 ④ 잘 모르겠다

최근 3개월 동안 책(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포함)을 몇 권 읽었나요?

- ① 1권 이하 ② 2~3권 ③ 4~5권 ④ 6~9권 ⑤ 10권 이상 ⑥ 읽지 않았다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중복 선택)

- ① 지식 습득 ② 자기계발 및 성장 ③ 여가·취미활동  
④ 스트레스 해소 ⑤ 학업 또는 업무 관련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나요?

- ① 소설 ② 자기계발서 ③ 비즈니스·경제서 ④ 에세이  
⑤ 학술서적 ⑥ 만화·그래픽노블 ⑦ 기타

책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중복 선택)

- ① 책 표지 디자인 ② 작가 ③ 추천사 또는 리뷰 ④ 출판사  
⑤ 책의 내용이나 주제 ⑥ 가격 ⑦ 베스트셀러 여부

책을 구입하는 가장 주된 경로는 어디인가요?(중복 선택)

- ① 오프라인 대형 서점(예: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② 온라인 서점(예: 예스24, 알라딘 등)  
③ 독립 서점(작은 동네 서점)  
④ 중고 서점(예: 알라딘 중고서점, 헌책방 등)  
⑤ 도서관 대여  
⑥ 기타

독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 ① 종이책 ② 전자책(e-book) ③ 오디오북  
④ PDF 파일 등 디지털 파일 ⑤ 기타

웹툰과 웹소설을 읽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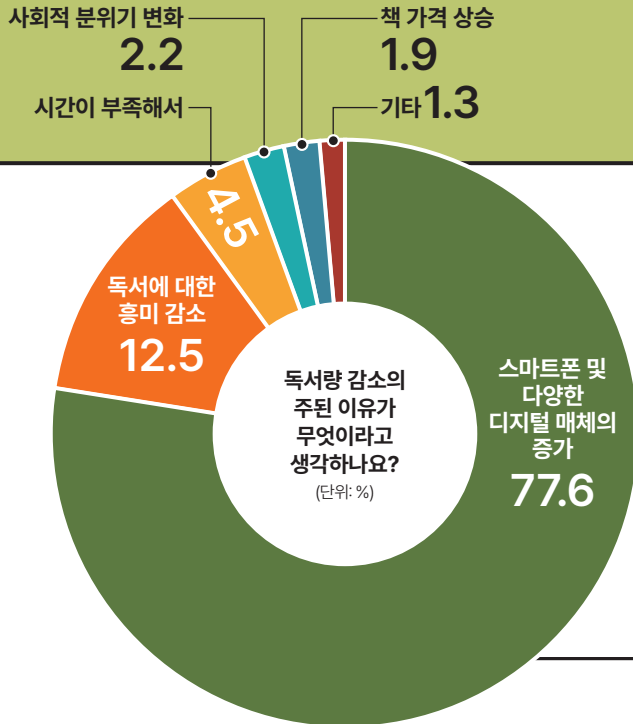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독서량 감소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스마트폰 및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증가  
② 시간이 부족해서 ③ 독서에 대한 흥미 감소 ④ 책 가격 상승  
⑤ 사회적 분위기 변화 ⑥ 기타

국민 독서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도서 구매 지원금 또는 할인 쿠폰 제공  
② 독서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대(독서의 달 행사, 북클럽 지원 등)  
③ 공공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확충  
④ 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⑤ 독서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예: 독서 챌린지, 유명 인사 독서 캠페인 등)  
⑥ 기타



국민 독서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위: %)

독서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30.7
도서 구매 지원금 또는 할인 쿠폰 제공	22.9
공공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확충	22.3
독서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대	10.3
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9.9
기타	3.9

MZ세대 참여자 1041명의 대답은?

수 있었어요.

‘책 표지 디자인’은 159명이 선택했고 ‘베스트셀러 여부’는 146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어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판사’와 ‘가격’이 각각 38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책을 구매하는 MZ세대의 습관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온라인의 약진, 오프라인의 건재’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책을 구입하는 주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서점’의 압도적인 인기였어요. 689명이 ‘온라인 서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며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받은 ‘도서관 대여(478명)’를 크게 앞섰거든요. 그러나 ‘오프라인 대형 서점’ 이용자도 421명에 달해 여전히 많은 독자가 직접 책을 보고 고르는 경험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독립 서점’ 이용자가 110명이나 된다는 것이었어요. 동네의 작은 서점들은 책을 선별해놓기 때문에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서점 주인과 소통하는 등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서점의 가치를 눈치 챈 MZ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중고 서점’ 이용자가 250명인 점도 흥미로웠어요.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중고 서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중고책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전자책 등장 이후 종이책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종이책 이용률이 71.9%로 압도적인 1위였지만 전자책 이용률도 27.5%에 달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유의 촉감과 향, 집중도

를 높여주는 물리적 존재감 덕분에 종이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전자책만의 장점이 점차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휴대성, 저장공간의 효율성 등이 전자책을 선택하게 만든 요인으로 보여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점, 종이책과 전자책. 이처럼 우리 주변의 독서문화는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 국민 독서율 상승의 해답은 ‘책 읽는 문화’

그렇다면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설문에 참여한 30.7%가 ‘독서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응답자가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됐던 MBC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독서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최근 걸그룹 멤버의 독서하는 모습을 따라 책을 읽는 10대 이야기를 언급한 답변도 눈에 띄었어요.

그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도서 구매 지원금 또는 할인 쿠폰 제공(22.9%)’과 ‘공공 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 확충(22.3%)’이었어요. 독서에 대한 경제적·물리적 접근성 둘 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모든 세대가 책과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K**



**KOREA**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2024**

9월 세 번째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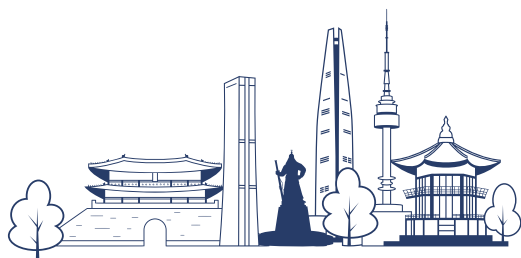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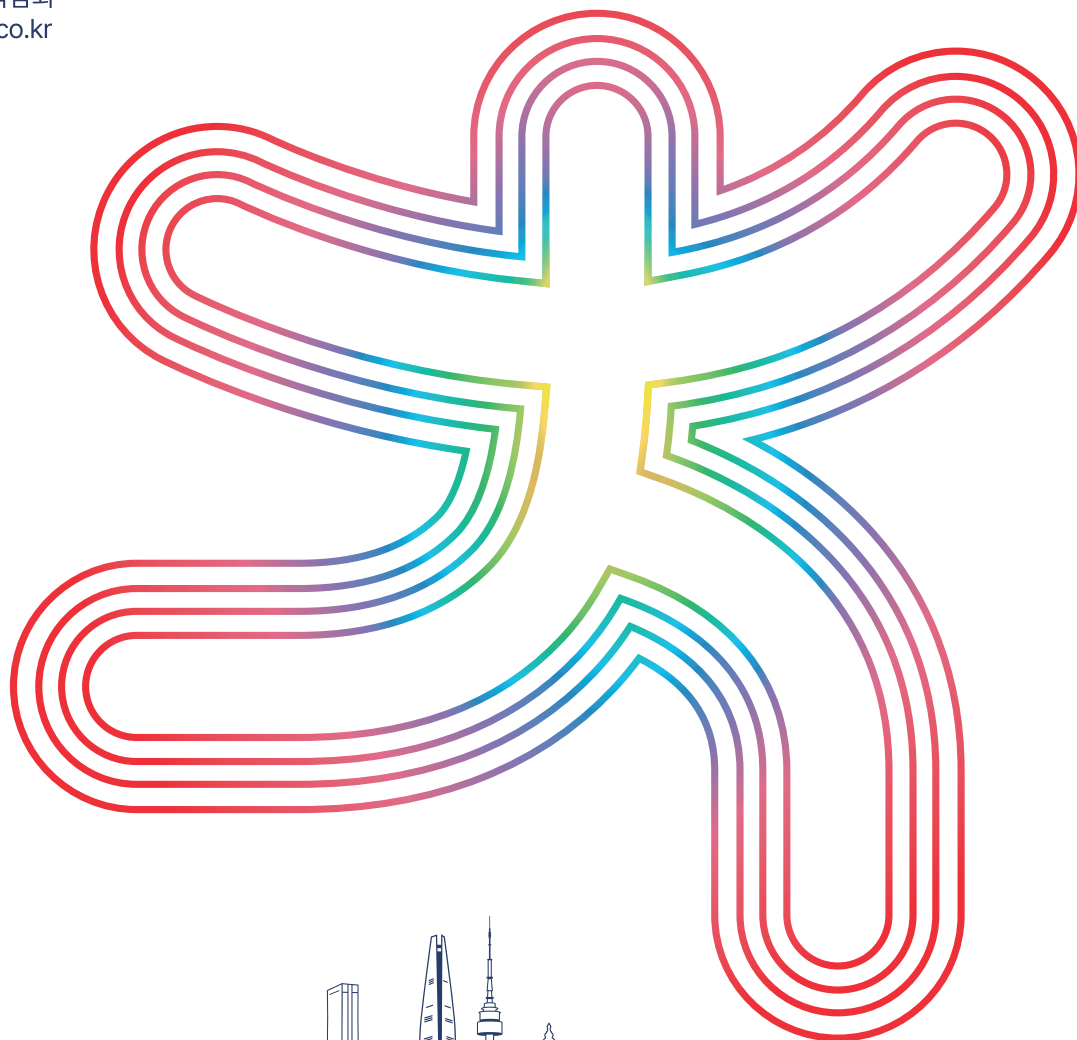
**09.20. - 09.22.**

청년정책 박람회

2030fair.co.kr

**09.21.**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의 날**  
**All Ways With Youth**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청년재단  
Korea Youth Foundation

## 임신·출산 후 퇴사 ‘0’ 7년째 가족친화기업 비결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중소기업 (주)로그프레스는 최근 사옥을 옮겼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마포구 공덕역 근처로 옮겼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 대전, 인천, 충북 청주 등 각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지하철 환승이 편리하고 KTX역이 있는 서울역이 가까워 출퇴근할 때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로그프레스 직원의 거주지가 전국 단위로 다양해질 수 있었던 데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

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방침이 크게 작용했다. 로그프레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업무코어시간으로 정해놓고 직원들의 출퇴근을 자유롭게 열어두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6개월 정도 전 직원 재택근무를 도입했는데 당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도다. 모든 직군에 재택근무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졌고 직원들도 각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발휘하면서 정책이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데는 2013년 창업 초기부터 일·생활 균형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과 운영에 힘쓴 로로그프레스 임직원의 노력도 큰 뒷받침이 됐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

### 임신·출산 적극 장려... 양육지원은 유연근무제로

“며칠 전 옆 부서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 조언을 구해왔어요. 팀원이 출산 예정인데 팀장으로서 어떤 자세로 지원해야 할지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의 1호 육아휴직자라 이런저런 경험을 말해줬어요.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발1팀 이현경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로그프

### 로그프레스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화제도

#### 1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 임신 축하선물 및 출산 축하금
- 임신기·육아기 근로단축 및 재택근무
-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 가족 돌봄 휴가·휴직
- 육아휴직
- 가족 종합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상해보험

#### 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 원격근무·재택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 패밀리데이(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 퇴근
- 가족 사랑의 날 정시 퇴근
- 장기근속 리프레시 휴가
- 보상휴가제



이현경 선임연구원은 유연근무제 등 회사의 가족친화적인 정책 덕에 두 아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하원을 직접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레소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 연구원은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산증인이다. 2019년생과 2022년생 두 아이를 둔 그녀는 본인의 임신과 동시에 로그프레소의 관련 복지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첫아이를 출산할 당시 회사에 여성직원은 단 두 명이었어요.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혜택과 제도를 열심히 찾았죠(웃음). 남성직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만 챙기면 되는데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단축근무, 휴직 등 챙겨야 할 정보가 많았어요.

회사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출산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줬고 제도 사용도 권장해줬어요. 입덧 등으로 몸이 힘든 임신기간에는 재택근무를 활용했고 출산선물도 받았어요.”

회사가 설립된 2013년 로그프레소는 직원이 10명가량으로 모두 미혼인 젊은 조직이었다. 결혼하는 직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임신과 출산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사규가 필요해졌다.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심이 있던 젊은 임원진은 법령에서 권하는 원칙과 제도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며 직원들을 위한 임신·출산



“로그프레스는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이후 지금까지 매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임에도 자발적으로 일·가정 균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생겼고 임신기간 중에는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는 등 출산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을 장려했다.

양육지원도 탄탄하다. 두 아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하원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이 연구원은 “회사의 유연근무제도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집중 업무시간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등원시키고 업무를 봐요. 하원시간이 되면 양육하는 데 시간을 쓰고 밤에 한두 시간 다시 업무에 집중해요. 쪼개서 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 일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는 회사의 확고한 철학과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덕에 로그프레스에는 이 연구원처럼 아이 등원과 케어에 신경을 쓰는 직원이 많다. 이를 두고 이 연구원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이전 직장에서는 일이 바빠서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했어요. 수직적인 기업문화 속에 있었고 주말 출근과 야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8년 이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많은 면에서 달라졌어요. 로그프레스는 본인의 일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일만큼 개인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임직원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면 얼른 가라고 말해주거든요. 물론 워킹맘으로서 개인적인 고충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율이 0%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전원이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다.

“출산 후 원래 하던 업무로 복귀했어요. ‘육아휴직 1년을 써도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공백기가 생기면 커리어를 잃을까봐 불안해서 임신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결혼을 해도, 임신·출산·육아를 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 2018년 최초 인증 후 매년 ‘가족친화기업’

로그프레스는 같은 시기 시작한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 직원 퇴사율이 낮은 편이다. 2013년 창립 멤버의 절반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제법 길다. 2018년 합류해 이를 지켜본 이 연구원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문화 덕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직원이 많이 늘었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작은 주제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의견을 내놓고 소통했어요. 경조휴가라는 작은 안건에 대해서도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제도를 만드

## 가족친화인증제는?

### 일·가정 양립 모범 기업에 금리우대 등 혜택

여성가족부가 2008년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추천 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공헌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기관이다. 가족친화 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업·기관은 공개검증, 공식행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2023년까지 5911개(중소기업 4110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미인증 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1.8%포인트 높았다. 또한 인증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출산휴가(6.6%), 육아휴직(6.3%) 등을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한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로그프레소는 201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뒤 매년 인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여가부는 9월 1일부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코바코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 라디오 등 광고비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인센티브)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여성가족부

는 식이었어요. 대기업 문화에 익숙했던 터라 처음에는 다소 놀랐지만 이렇게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반영하는 과정이 좋은 기업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그프레소는 2018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이후 지금까지 매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임에도 자발적으로 일·가정 균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회사 발전으로도 이어졌다. 일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다. 조직문화와 직원만족도 모두 선

순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변화는 수치가 말해준다. 2018년 최초 인증 당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45.5%였는데 2020년 인증 연장 시 82.1%, 2023년 재인증 시에는 활용률이 100%에 달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해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원을 포함한 로그프레소 직원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고 건의를 해도 임원진의 의지가 없다면 시작조차 안됐을 것”이라면서 “결혼과 임신, 출산을 했을 때 회사가 반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임언영 기자

#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다

## 최동호 시인

인류는 인간소외, 인구소멸 등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엄청난 위기였지만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일과 생활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인문정신과 창조활동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위원장 최동호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기 발견 통해  
금지 갖고  
행복 느끼는 것이  
인문정신의  
핵심”

**Q**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과거와 현재, 어떤 변화를 보고 있나?

인간의 불안과 공포는 시대를 막론하고 경험하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과거에는 신에 의지해 해결했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중심을 잃고 집단적인 흐름에 휩쓸려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심과 정의감이 약화됐다. 이런 변화는 인문정신의 약화와도 관련이 있다.

**Q**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인문정신이 중요하다. 인문정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인문정신이란 자기 발견을 통해 존재의 정당성과 긍지를 갖는 것이다. 그로부터 느끼는 행복감이 인문정신의 핵심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예를 들어 유명해지기 위해 시를 쓰는 사람과 자기 내면의 진정한 필요에 따라 시를 쓰는 사람의 만족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

**Q** 인문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래야 행복감도 증진된다. 이러한 행복을 주는 교육의 근원이 언어교육이라고 생각한다.

**Q** 언어교육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교육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종착점이 언어교육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언어라는 의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 결정된다.

**Q** 우리 사회 전체에 인문정신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인문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인문교육에서 나온다. 인문교육은 분야를 넘나든다. 과학자가 시를 읽고 창의적인 사고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인은 과거 유물을 보면서 영감을 받고 화가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런 상호 발전적인 순환회로를 만드는 것이 인문정신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제다.

**Q** 순환회로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방향도 바뀌어야 할까?

맞다. 기능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능교육과 함께 그것이 전인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바꿔야 한다.

**Q** 당장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인문정신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크고 두드러진 음악보다 배경에 깔린 낮은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곤 한다. 인문정신도 바로 그런 낮은 소리와 같다. 요즘 소리만 요란한 소음이



대담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  
'인문360(inmun360.cultur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난무한다. 진실한 언어가 소통되고 공유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Q 금지를 강조했는데 어떤 것들인가?**

2023년 프랑스의 몇몇 대학을 방문했는데 파리와 마르세유의 대학에서 프랑스인들이 한국 시를 읽고 기뻐하고 울기도 하는 모습을 봤다. 방탄소년단(BTS)이 공연할 때 외국의 한 음악 평론가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을 봤다. 단지 기능적·기교적인 춤과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된 열정, 즉 신바람을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난 역동성을 지닌 민족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금지로 되찾아야 한다.

**Q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들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민족의 위대성은 독창적인 문자, 즉 한글에서 드러난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적합하다. 다른 언어보다 속도감 있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류의 핵심에 한글이 있다. 이는 엄청난 장점이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계발하고 보편화하는 것이 인문교육의 기본이고 이걸 통해 현 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징후들을 극복할 수 있다.

**Q 부정적인 징후들을 맞닥뜨린 시대, 인문정신과 이를 표현하는 창조활동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나?**

인문정신은 개인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내적 힘의 원천이다.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금지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 방식을 개발하게 된다. 창조활동은 이러한 개인의 발견을 실제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술, 문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외부 세계에 표현할 수 있다.

**Q 모든 사람이 다 창조자, 창작자가 될 수는 없을 텐데 개개인이 어떻게 창조활동으로 인문정신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창조성이나 인문정신은 함께하는 정신이다.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해서 더욱 확장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문화민족이 되고, 문화민족이 되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된다.

**Q 그렇다면 개개인의 창조활동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인문정신과 창조활동은 문화적 다양성의 뿌리다.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때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사회는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창조적 활동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증폭시킨다. 창의와 혁신이 없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인문정신과 창조활동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창조적 열쇠는 인문정신이라는 자각이 절실하다. **K**



**최동호 시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위원장.  
1948년 경기 수원시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수료.  
197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박두진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미국 제니마문학상, 이탈리아 '유폴파 인 베르시(Europa in versi)'의 '올해의 시인상' 등 수상.

#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다

이중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초연결시대, 지식의 영역에서

기술이 인간을 넘어선 지금,

어느 시대보다 삶의 가치를 분별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했다.

어떤 문화가 형성돼야 인류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인문은 이런 문화의 확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중원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AI와의 공존

지식 보다

지혜 필요

도구 아닌

반려자로 인식을

**Q 우리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기후 재앙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위기는 근대의 인간 중심적 사고의 결과라고 한 바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어왔다.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할 때 자신은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로, 세상은 인식할 대상으로 봤다. 자신과 주변을 분리해서 바라본 거다. 자연의 모든 정보는 인간이 설계한 장치나 실험도구로 수집되고 인간이 만든 언어와 개념체계로 해석됐다.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자원의 보고로, 생명체는 식용·관상용·애완용으로, 기계는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모품으로 봤다. 기술 개발의 목적 자체가 인간 욕망의 끝없는 구현에 있다. 인간 외의 존재를 도구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배타적인 인간 사회가 구축되고 인간만이 세계의 중심이고 유일한 행위자라는 관점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위계가 설정되고 차이에 따른 차별이 정당화됐다. 결국 인간 외의 존재는 차별하는 휴머니즘이 강화되면서 인간마저 대상화하고 차별하게 된 거다.

**Q 인간이 AI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미래의 자율형 로봇을 전자 인격체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인격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human)과 인격(person)을 구분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종(種) 개념으로, 인격은 '이성을 갖고 반성하며 생각하는 지적 존재자'로 봤다. 나는 인격성을 지적활동에 필요한 요건과 능력들로 보고 인간성은 지적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지혜의 추구로 보고 있다. 인간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지만 인격성은 동식물이나 비인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인격성에 어느 정도 층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인격성에도 층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인격성의 다양한 요소들이 등급이나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성, 감성, 자율성, 도덕성, 자유의지 같은 인격 요소들이 각기 다른 수준이나 레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Q 그렇다면 AI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

인간은 자기 필요와 영향력을 평가하며 존재자들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한다. 강아지가 반려동물이라는 지위를 얻은 것처럼 AI에도 인격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삶에 중요한 존재들에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다.

**Q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다. 지식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누적·집중되고 폭발적으로 팽창한다. 지식은 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지혜는 지식과 다르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지식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유용한지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 지

대담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 '인문360(inmun360.culture.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식은 쌓는 것이지만, 지혜는 쌓인 지식을 보고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혜는 메타인식이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가치와 관련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특별히 지혜가 더 중요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AI는 '지식의 총화(모든 지식을 모아놓은 것)'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지식의 차원에서는 AI와 경쟁할 수 없다. 인간이 설 자리는 바로 지혜다. 지혜는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안내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지혜로 무장된 선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인간 중심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AI와 동등한 관계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Q 청소년들이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 감성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감성뿐만 아니라 배려와 존중, 우정 등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성을 중요시하는 '관계 지향적 감성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AI와 같은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성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반려 감성'이라고 부른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반려자로 여기는 감성이다.

**Q 근대의 인간 중심적 사고와 배타적 휴머니즘이 현재의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할까? 그리고 인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탈 인간중심적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연과 생명체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나는 뉴휴머니즘이라 부른다. 뉴휴머니즘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포용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관계 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덕적 감정을 키워야 한다. 체험교육과 도덕적 인지 프로젝트를 통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문적 연구와 철학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윤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회적·법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뉴휴머니즘을 실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Q 인문학을 통해 건강한 AI 문화산업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AI를 도구가 아닌 반려자로 인식하게 하는 '반려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AI 솔루션을 만들어 AI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AI와 감성적 상호작용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AI를 주제로 한 드라마·영화·소설 등을 통해 대중이 AI와의 건강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인문 연구와 철학적 성찰을 토대로 AI와 인간이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K**



**이중원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 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과학철학으로 이학박사 학위.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역임. 현대 물리학인 양자이론과 상대성 이론의 철학, 기술의 철학, 현대 첨단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 관련 문제가 주요 관심 분야.





박수빈(35) 씨는 식당에 갈 때마다 꼭 확인하는 사항이 있다. 1층에 있는지, 경사로나 승강기는 갖추고 있는지 등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나서야 예약을 하고 식당을 찾는다. 건물 앞에 낮은 문턱이라도 있으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30년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박 씨는 식당을 찾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 ‘요즘 세상은 웬만한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정보를 서비스해주는 앱은 없을까’ 고민했다. 박 씨는 매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다니던 직장 동료 이대호(34) 씨와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의기투합했다.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 2021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계단뿌셔클럽’이 결성됐다.

국내 등록장애인은 2022년 말 기준 265만 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20명 중 1명꼴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갖고 생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벽이 있다. 의료서비스와 교통수단 외에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장애인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다. 그중 ‘계단뿌셔클럽’은 장애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에게 당연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결성된 단체다.

계단뿌셔클럽은 이동약자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도시의 ‘계단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계단정보지도’ 앱을 만든다. 비영리단체로 일반 시민들이 클럽 회원(자원봉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 “이동약자 불편은 그들 아닌 우리의 문제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게 계단 ‘뿌수리’ 다닙니다”

이동약자의 문제 해결에 나선  
박수빈(왼쪽)·이대호 씨는 “계단뿌셔클럽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사자)이 돼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관련  
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클럽 회원들이 가게 출입구 사진, 엘리베이터  
와 경사로 유무 등을 앱에 등록하면 이동약자는  
이를 활용해 접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해 올해 8월까지 2000여 명의 회원  
(누적인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 6000여 곳  
의 장소를 직접 방문해 ‘계단정보’를 모았다. 시  
즌별로 진행한 일명 ‘계단정복활동’만 190회다.

이들이 준비 중인 ‘계단정보지도’가 완성되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부터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  
람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  
망이다. 지도를 통해 이동정보를 한 번에 파악  
할 수 있어 공공에서 도시계획이나 정책을 수립  
할 때 참고도 가능하다. “계단뿌셔클럽은 사람

들이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도구”라고 박수빈·이대호 씨는 입을 맞춰 말  
했다.

‘계단뿌셔클럽’이라는 이름에서 이동약자의 문제를 해결하  
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대호(이하 이)** 말 그대로 계단이라는 장애물을  
부서나가자는 말이다. 이동약자의 불편함을 없  
애자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박수빈(이하 박)** 우리는 보통 끝장을 보자는 의미  
로 ‘뿌수자’는 말을 한다. 계단정보를 모두 모아  
서 끝까지 가보자는 의지를 담았다.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

**이** 수빈 씨와 같은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며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는 친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친구를 위해 스스로가 자연히 움직여지는 거다. 우리 주변에 이동약자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알게 되면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애플리케이션 '계단정복지도'의 실행 화면.

있었다. 일상적으로 점심식사나 회식 때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출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내는 넓은지 알고 싶는데 확인하기가 번거로웠다.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하다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처음에는 사내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을 모아 활동했다. 활동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업무 외 시간에만 활동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느껴졌다.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 인생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창업 이후 활동 반경을 넓혀 시민 참여형으로 클럽활동을 확장시켰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집단이 형성됐다. 이동약자 친구들이 늘어나니까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됐다.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박** 프로덕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앱 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는 클럽활동인 ‘계단정복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계단정복활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이** 시즌제로 운영하며 매회 60명의 정예 멤버와 300여 명의 자발적 참여자가 모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계단정보를 모으고 있다. 입구에 경사로가 있는지, 승강기는 갖추고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앱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올봄에는 서울 성동구를 중심으로 성수역, 왕십리역, 건대입구역 등 주요 역 주변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았다.

활동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매 시즌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누리소통망(staircrusher.club)과 인스타그램(@staircrusher.club)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지가 나가고 참여자가 모이면 2인 1조로 2시간 동안 50개씩 정보를 모은다. 활동은 ‘크루’ 또는 ‘게스트’로 동참할 수 있다. 크루는 3개월 멤버십을 획득해서 꾸준히 참여하는 운영진 멤버다. 게스트는 1회성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활동은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20~30대가 주를 이룬다.

이것도 엄연한 사업이다.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박** 크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정규 시즌 활동, 둘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트너십, 셋째는 컬래버레이션(협업)이다. 정규 시즌은 말 그대로 ‘계단정복활동’을 말한다. 봄·가을 3개월씩 지역을 정해서 매주 주말마다 정복활동 행사를 열고 있다. 운영비는 ESG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재단이나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ESG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후원구조를 만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후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 어디서 지원 받았고 어떤 기업과 함께했나?

**이**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아산나눔재단, 행복나눔재단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CTR(씨티알)그룹이 대대적으로 도움을 줬다. 올해는 쏘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이 가진 자원이 많다. 직원들이나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인상 깊었던 참여자 반응이 있다면?

**이** 현장에서 정복활동을 같이하고 나서 나눔을 갖는다. 한 20대 여성은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가 가족 외식 때마다 가던 곳만 가게 돼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계단뽀서클럽 활동을 통해 나만의 문제로 여겼던 것이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말할 때 뿌듯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줬다는 점에서 우리 활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회원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이들도 있다. 불편함에 익숙해져 포기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활동을 하며 희망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뭉클했다.

창업 4년 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시기다.

**박** 지금은 수집에 가까운 단계다. 사용자들에겐 정보가 중요하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7만~10만

개 정보를 모으면 교외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앱을 이용해 누구나 집 주변 정보를 올릴 수 있다. 5000만 명의 국민 중 5만 명만 참여해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모인다. 참여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때다. 향후 지도를 만들어 서울을 비롯해 지방 곳곳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 정보란 유동적이다. 탐색뿐만 아니라 실제 후기도 필요하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 이동약자 중심의 정보와 콘텐츠를 담고 탐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바람이다. 또한 서울만이 아니라 국내, 더 나아가 해외 지역의 정보까지 담고 싶다.

앞으로의 비전과 철학이 있다면?

**이** 이동약자의 막힘없는 이동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동약자와 친구들’이라는 이 복잡한 주어를 앞으로도 유지하고 싶다. 계단정보를 모으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 이동약자와의 우정을 키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 클럽을 거쳐간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모여 민심이 변화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본다. 우리는 소비자이자 유권자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였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여론 지형의 변화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 우리 활동의 의미 중 하나는 이동약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한 번 바라보자는 데 있다. 결국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우정 안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일이다. 친구를 위해 스스로가 자연히 움직여지는 거다. 우리 주변에 이동약자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알게 되면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K**

서경리 기자

##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이방운, '빈풍칠월도', 비단에 연한 색, 34.8×25.6cm, 국립중앙박물관

옛 그림을 공부하다 보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추석과 관련된 그림이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이다. 추석 뿐만 아니라 설에 관한 그림도 없다. 새해가 되어 한 해를 축원하는 세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설날의 풍경을 그린 그림은 전무하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추석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명절로 그 역사도 오래되었는데도 말이다.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를 기념하는 명절이다. 차례상에는 햇곡식으로 지은 제물을 올려 조상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햇과일, 햇곡식, 햇나물 등에 붙는 접두사 ‘햇’은 ‘그해에 새로 난’이란 뜻을 가진다.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 알’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대추가 저절로 붙어질 리는 없다’. 태풍, 천둥, 벼락에 조상님의 돌보심까지 더해져야 붙어진다. 추석은 붉은 대추와 같은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해준 천지만물에 대한 감사의 인사다. 이 모든 풍요로움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농부의 겸손도 들어있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진 추석의 의미가 그림에는 가 닿지 않은 듯 조선시대에는 추석그림이 없다. 그래서 추

## 추석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

석그림 대신 이방운(李昉運·1761-?)의 〈빈풍칠월도(飢風七月圖)〉를 가져왔다. 추석 즈음의 농촌풍경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이다. 〈빈풍칠월도〉는 『시경(詩經)』의 「빈풍칠월편」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중국 주(周)나라 때의 성인周公(周公)이 왕이 된 어린 조카가 백성들의 농사짓는 어려움을 모를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지은 월령가(月令歌)를 소재로 삼았다. 이방운은 월령가에 맞게 전체 그림을 총 여덟 면으로 제작했다. 그중 이 그림은 여섯 번째 장면이다.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상단의 제시부터 살펴보자.


“유월에 머루랑 아가위 먹고, 칠월엔 아욱이랑 콩을 삶네. 팔월이면 대추 따고 시월이면 벼를 베네. 이것으로 봄술 빚어 노인들 장수 비네. 칠월이면 오이 먹고 팔월이면 박을 타고, 구월이면 삼씨 줍고 씀바귀 뜯고 땀감 베어, 우리네 농부들은 이렇게 살아가네.”

그림에는 제시의 내용처럼 유월부터 구월까지의 농촌 풍경이 충실히 담겨있다. 먼저 우측 산 아래를 보면 나무 아래 낮아 머루와 아가위를 먹는 유월을, 언덕선을 따라 좌측 아래로 내려가면 집안에서 화덕에 술을 끓이고 아욱과 콩을 삶는 칠월의 풍경이 보인다. 칠월 풍경 위에는 대추 따는 팔

월이, 그 아래에는 벼를 베는 시월의 농부들이 넓게 그려졌다. 다시 콩 삶는 집 좌측 위에는 봄술을 들고 노인을 찾아가 장수를 비는 장면이 나온다. 하단 좌측에는 여러 사람들이 원두막 아래 앉아 오이 먹는 칠월과 지붕 위의 박을 따는 팔월이 다시 등장한다. 시에 적힌 그대로다.

그렇다면 구월의 풍경은 어디 있을까? 이방운은 삼씨 줍고 씀바귀 뜯고 땀감 베는 구월의 풍경을 맨 하단에 배치했다. 여러 장면을 일일이 그리는 대신 농부가 소 두 마리에 땀감을 싣고 가는 모습으로 생략했다. 그 덕분에 화면은 넓어졌고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이 마치 한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림이 시작된 우측 나무 아래

의 유월 풍경 위에는 시의 맨 끝에 보이는 산에서 땀감을 지고 내려오는 남정네가 보인다. 그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을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네 농부들은 이렇게 살아가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농촌에서의 1년은 해마다 거의 이런 일정표에 의해 되풀이된다. 그 속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태풍과 천둥과 벼락 같은 천재지변을 겪어야 대추가 익을 정도로 농사일이 고되지만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다 보면 해마다 어김없이 햇과일, 햇곡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추석은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공동체의 명절이다.

추석이 2000여년을 이어져온 것은 관습에 의해 전해졌다고보다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발굴해내야 한다. 이어령 선생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 문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놀이로 연결시켜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세계인이 ‘치맥’과 라면에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의 축제 추석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추석에 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상모 돌리며 사물놀이를 즐기고 아프리카에서 달을 보며 강강술래를 하는 그림을 상상해본다. 

조정욱 미술평론가

“  
천둥과 벼락 같은 천재지변을  
겪어야 대추가 익을 정도로  
농사일이 고되지만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다 보면  
해마다 어김없이 햇과일, 햇곡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이다.”



# K-전통주

## 세계가 취한다

### 2024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주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추석,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에 전통주만한 것이 없으니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정된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아봤다. 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전통술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만드는 일률적인 맛이 아닌 나만의 취향에 맞는 술을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컬처 열풍을 타고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8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8개 제품을 선정·발표했다. 우리 전통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 제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상  
이도42

- 부문 증류주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 (충북 청주시)
- 쌀(국내산) / 750ml / 42%

술을 빚는 원료로 유기농 쌀만 고집해 만든 국내 유일의 유기 가공 증류식 소주다. 유기농 인증(제13-8-114호)을 받은 최초의 증류주다.

#### 대상 수상작



독수리  
막걸리

- 부문 저도탁주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신탄진주조(주) (대전)
- 쌀(국내산) / 750ml / 6%

한화이글스와 대전의 지역 양조장인 신탄진주조의 컬러버 제품. 자연스러운 단맛과 은은한 과일향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인 탁주다.



해남참쌀생막걸리  
9도

- 부문 고도탁주
- 업체명 삼산주조장  
(전남 해남군)
- 참쌀·멥쌀(국내산) / 750ml / 9%

인공감미료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질 좋은 해남산 참쌀과 멥쌀을 반반 배합해 장기 발효시킨 탁주다.



한영석  
백수환동주

- 부문 약·청주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주)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전북 정읍시)
- 참쌀(국내산) / 375ml / 15%

조선시대 생활백서인 ‘증보산림경제’에 나오는 백수환동주를 자가제조한 백수환동곡을 사용, 한영석 백수환동주로 재해석해 빛은 프리미엄 약주다.



우도막걸리  
전통주

- 부문 기타주류
- 업체명 영농조합법인  
우도평공막걸리 낙화곡주  
(제주)
- 쌀(국내산), 평공분말(국내산) / 750ml / 6%

우도에서 직접 생산한 제주도 지역특산물로 우도 평공 특유의 고소한 향과 달달한 맛이 특징인 기타주류다.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

- 부문 과실주
- 업체명 불휘농장 (충북 영동군)
- 청포도(국내산) / 500ml / 11%

‘청수’ 품종으로 제조한 최초 생산 제품. 특허 효모를 활용해 청포도의 새콤달콤한 맛과 풍부한 열대과일 향이 특징인 과실주다.



풍정사계 춘

- 부문 약·청주
- 업체명 (농)(유)화양  
(충북 청주시)
- 참쌀·멥쌀(국내산) / 500ml / 15%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풍정리의 사계절 중 봄을 담은 전통주. 잘 숙성된 누룩의 향과 특유의 배꽃, 매밀꽃, 어린 사과향이 있는 약주다.



프리미엄 막걸리  
이바비

- 부문 고도탁주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흥해라이팜(주) (경북 포항시)
- 참쌀·멥쌀(국내산) / 375ml / 17%

희석하지 않은 프리미엄 막걸리 원주. 차별화된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고 탄산수나 과일청 등 각테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올해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됐다. 품평회의 심사는 ①저도 탁주 ②고도 탁주 ③약·청주 ④과실주 ⑤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⑥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출품 수가 많은 탁주 부문을 저도 탁주(8도 미만)와 고도 탁주(8도 이상)로 세분화해 우수 전통주 발굴과 주종 간 형평성을 강화한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심사는 주류 전문가 44인과 부문별 국민위원 40인이 참여해 엄격하게 진행됐다. 부문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3개 제품(6개 주종 총 18개)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제품 중 대통령상을 차지한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이도42'는 충북 청주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

농 쌀을 원료로 제조한 증류주다.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평가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문별 대상은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참쌀생맥걸리9도(고도 탁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 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이 각각 차지했다.

품평회에서 선정된 18개 수상작에 대해선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기념 행사와 연계해 시상식을 진행한다.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촉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K**

임연영 기자

#### 최우수상 수상작



포엠로제

- 부문 과실주
- 업체명 갈기산포도농원(주) 농업회사법인 (충북 영동군)
- 킨데라웨어(국내산) / 750ml / 12%

국내 유일 킨데라웨어 품종으로 만든 와인으로 신선한 산미와 적절하게 녹아 있는 탄닌의 조화로운 구조감이 돋보인다.



허니문

- 부문 기타주류
- 업체명 아이비영농조합법인 (경기 양평군)
- 꿀(국내산) / 375ml / 10%

유럽의 식전주로 활용되는 미드(MEAD) 방식으로 만든 제품.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벌꿀 고유의 단맛과 벌꿀·살구향을 느낄 수 있다.



두레앙 일반증류주

- 부문 증류주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주)두레앙조 (충남 천안시)
- 포도(국내산) / 500ml / 35%

맑고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으며 42도에서 감압방식으로 증류해 불탄내가 없다. 포도와 알코올에서 나오는 진한 맛이 입 전체를 채워 부드러운 목넘김이 좋다.



새냉이길 막걸리

- 부문 저도탁주
- 업체명 주식회사 진정브루잉 (강원 강릉시)
- 참쌀(국내산) / 600ml / 6%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저도수의 부드럽고 가벼운 질감으로 만들었다. 감미료를 넣지 않아 강릉 참쌀만의 고급스러운 단맛이 특징이다.



불뽕간 막걸리10

- 부문 고도탁주
-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주)벗드림 (부산)
- 참쌀(국내산) / 500ml / 10%

전통 방식 발효로 참쌀의 풍미와 보디감, 산미의 밸런스가 뛰어나고 목넘김 후 입안 가득 퍼지는 꽃향이 특징인 탁주다.

#### 우수상 수상작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 부문 저도탁주
- 업체명 (주)농술빛는 전가네 (경기 포천시)
- 쌀(국내산) / 720ml / 6%

임원삼육지와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에 기록된 전통주. 맛은 벌꿀처럼 부드럽게 입에 달라붙는 무게감이 있고 향은 과일향이 섞인 듯 향긋하다.



려증류소주 40 (고구마100%)

- 부문 증류주
- 업체명 (농)국순당 여주명주(주) (경기 여주시)
- 고구마(국내산) / 375ml / 40%

증류소주가 시작된 고려, 증류소가 위치한 여주, 가래말(검은말)을 의미하는 '려(麗)'는 고유의 전통 가치와 지역의 개성을 담은 술이다.



코아베스트 포트미드

- 부문 기타주류
- 업체명 코아베스트브루잉 (경기 김포시)
- 꿀(국내산) / 375ml / 20%

벌꿀 발효주인 미드(MEAD)와 미드 증류주인 허니 사인을 블렌딩한 제품. 벌꿀의 달콤함을 그대로 유지한 후 캐나다산 오크통에서 숙성해 은은한 오크향이 난다.



에밀와인 드라이

- 부문 과실주
- 업체명 에밀2리 영농조합법인 (강원 영월군)
- 캠벨얼리 / 750ml / 13%

진한 붉은색을 띠고 특유의 산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캠벨얼리 품종보다 탄닌 성분이 많다. 적당한 무게감과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지란지교 프리미엄 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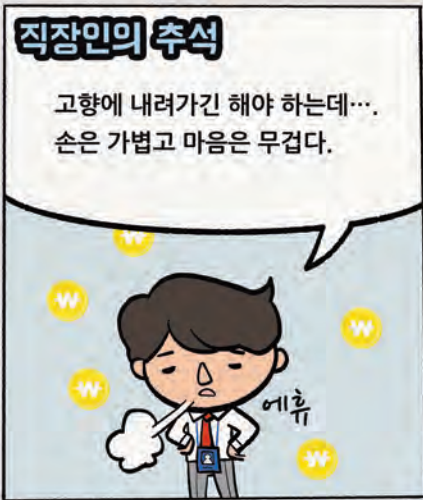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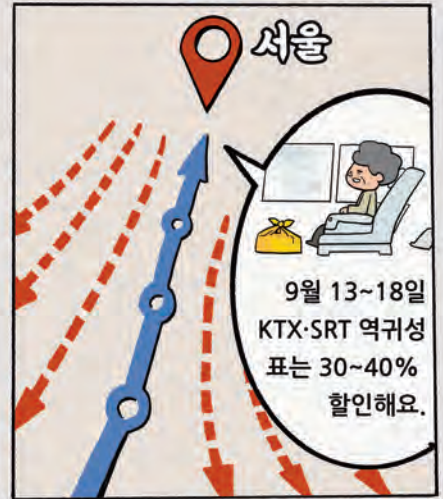
- 부문 약·청주
- 업체명 지란지교 (전북 순창군)
- 참쌀·맨쌀(국내산), 밀(국내산) / 500ml / 15%

조선시대 누룩으로 유명했던 전북 순창군 건국리의 누룩구전비법으로 만든 누룩과 순창의 백일주 주방문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약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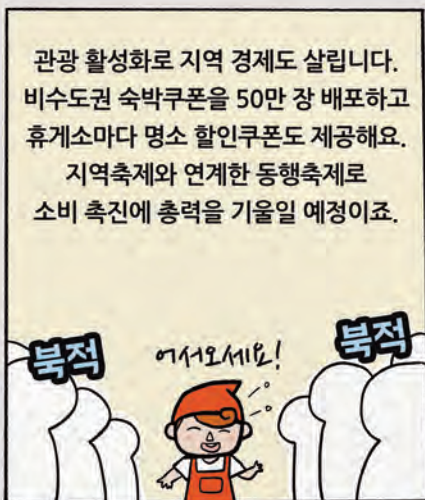


## 추석 민생안정대책

## 부모님도 직장인도 소상공인도 걱정없게











###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 3.61km 케이블카 타고 호수 위를 날다



호반의 도시답다. 여기도 저기도 호수와 맞닿아 있다. 강원 춘천시에는 호수가 3개 있다. 시내 한북판에 의암호가 있고 그 북쪽에 춘천호가, 동북쪽에 소양호가 있다. 이 중 춘천을 대표하는 호수를 꼽으라면 단연 의암호다. 의암호에는 호수를 가로질러 케이블카가 다닌다.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다. 2021년 10월 운행 시작과 함께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뽑은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과 2023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밤이 더 아름다운 관광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됐다. '2024 열린관광지'에도 이름을 올렸다.





춘천시 삼천동에서 출발해 삼악산의 433m까지 올라가는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국내 최장으로 무려 3.61km에 달한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우선 길이부터 압도적이다.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무려 3.61km다. 삼천동에서 출발해 삼악산의 433m 높이까지 올라간다. 편도만 20분 정도 걸린다. 총 66대가 계속 순환하며 사람을 실어나르는데 동반자 위주 탑승이라 프라이빗한 이용이 가능하다. 내부에 흐르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정취를 더해준다.

캐빈 중 20대는 바닥까지 모두 유리다. 일명 ‘크리스탈 캐빈’이라고 한다. 정차장을 벗어난 캐빈은 금세 땅과 멀어진다. 자동차와 나무가 깨알처럼 작아지고 시야엔 거칠 게 없어진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의암호가 끝없이 펼쳐진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이따금씩 수면을 흐트러뜨린

다. 수면에 찰랑거리는 물비늘이 물고기떼 같기도 하다. 순간, 하늘을 나는 듯한 착각이 든다.

무인도인 봉어섬도 내려다볼 수 있다. 봉어섬은 태양광 전지판들로 장관을 이룬다. 봉어섬을 지나면 삼악산과 점점 가까워진다. 삼악산과 드림산은 물론 춘천의 주산인 오봉산 능선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거대한 병풍을 눈앞에 둔 듯 비현실적이다. 절경이 클라이맥스를 찍으면 삼악산에 도착한다.

삼악산 정차장에 내리면 산책로를 따라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갈 수 있다. 산책로는 왕복 870m를 지그재그로 연결한 데크길이다. 경사가 완만해 노약자와 장애인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





삼악산 정차장에 내리면 데크로 연결한 산책로를 따라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갈 수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이따금씩 수면을 흐트러뜨린다.  
수면에 찰랑거리는 물비늘이 물고기떼 같기도 하다.  
순간, 하늘을 나는 듯한 착각이 든다.”

다. 20분가량 걷다보면 스카이워크에 도착한다. 아래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지면까지 높이가 35m에 달해 짜릿하다.

케이블카의 특성상 바람이 너무 강하면 운행이 중단된다. 누리집이나 전화로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이 완료된 소형 반려견이라면 함께 타는 것도 가능하다. 반려견 요금은 따로 받지 않는다.

### 국내 유일 캐나다인 카누 체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의암호에서는 카누도 즐길 수 있다. 공중에서 춘천의 산수를 유람했다면 이제 수상에서 호반의 도시를 제대로 음미할 차례다. 의암호에는 돌레길과 더불어 ‘물레길’이라는 카누 물길이 조성돼 있다. 케이블카 하부 정차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물레길 시작 지점이 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킹카누 나

### 춘천, 여기는 어때요?

### 소양강스카이워크

### 청평사

춘천에는 스카이워크가 두 개다.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의암호스카이워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춘천역에서 걸어도 20분, 역 앞의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면 10분,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면 간다. 2016년 문을 연 소양강스카이워크는 이름 그대로 소양강 위를 걷는 다리 모양의 조망시설이다. 전체 길이 174m에 투명 유리 바닥 구간이 156m로 국내 스카이워크 중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실제로 유리 바닥을 따라 걸으면 정말 강물 위를 걷는 기분이다. 스카이워크 끝부분 넓은 광장 같은 공간 또한 전체가 유리 바닥이어서 짜릿한 느낌이다. 입장료가 2000원인데 입장권과 함께 춘천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준다. 춘천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사실상 ‘공짜’인 셈이다.



973년, 고려시대 광종 24년에 창건된 절이다. 수많은 학자들과 문인들이 청평사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이곳에 머무르며 학문을 쌓았다고 한다. 소양강댐에서 10여 분 배를 타고 들어간다. 찾길도 있는데 구불구불해 배가 낫다. 선착장부터 절까지는 약 30분 산행해야 한다. 산행길은 평탄하고 호젓하다. 특히 경내에 있는 보물 제164호인 회전문이 유명하다. 당나라 공주와 상사뱀의 설화가 담겨 있다. 배는 소양호 선착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출발한다. 돌아오는 배편은 청평사 선착장에서 매시 30분에 있으며 오후 4시 30분이 마지막 배다.



루터'다. 국내 유일의 캐나다안 카누 체험이라고 한다. 기름 냄새나 소음이 없는 무동력 친환경 레포츠다.

킹카누를 타고 북한강 줄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물길에 몸을 실어본다. 노를 저어 의암댐 쪽으로 나아가면 위에서 내려다봤던 삼악산과 드림산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산등성이가 뻗어 내린 반대편에는 점을 찍어놓은 듯한 케이블카가 삼악산으로 줄지어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체험은 의암댐, 붕어섬, 하중도, 의암호 등 네 가지 대표 코스로 운영된다. 해설사 겸 안전관리인이 함께 탑승해 카누 타는 방법, 관광지 소개, 안전부분까지 설명해준다. 안전교육을 포함해 1시간 30분 남짓 소요된다.

킹카누 나루터는 '2019 열린관광지'로 선정됐다. 휠체어 탑승 가능 카누와 진입로 확보, 장애인 화장실 및 음성 안내판 등 누구나 카누를 즐

길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시설을 완비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도 가능하다.

봄의 도시라 불리는 춘천은 가을에도 좋다. 가을은 전국의 자전거 애호가들이 반기는 계절이다. 의암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자전거길에서 호수의 풍경을 담으며 자전거길 투어도 떠날 수 있다. 쉬엄쉬엄 달려도 3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둘러볼 수 있다. 소양강치녀상과 소양강스카이워크, 애니메이션박물관 등 명소도 끼고 있다.

호수 둘레를 따라 자전거대여소와 공기 주입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 순환형 코스이기 때문에 춘천역이나 공지천, 소양강스카이워크 주변 자전거대여소를 출발점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

의암호 자전거길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단골로 선정된다. **K**

박지현 기자

## 강아지숲박물관

강아지숲은 춘천시 남산면 일대에 있는 반려견 테마파크다. 13만 5000㎡(약 4만 평) 크기로 2023년 정식 개관했다. 이곳에 강아지숲박물관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국내 제1호 반려견 전문 박물관이다. 개와 인간이 함께해온 과거·현재·미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적인 반려문화 교육·전시공간이다. 반려견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장도 있다. 반려견 운동장, 수영장, 산책로, 연못, 카페 등이 춘천의 청정 자연숲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카페엔 반려견 전용 메뉴가 마련돼 있고 수영장엔 반려견 전용 샤워실, 드라이룸 등 편의시설과 식당을 갖췄다. 반려견 안전을 고려해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이용하는 날을 구분해 예약제로 운영한다.



## 김유정역

소설가 김유정의 이름을 딴 역이다. 춘천에는 김유정역이 두 개다. 경춘선 김유정역은 2012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하면서 새로 태어난 역이고 그 옆의 또 다른 김유정역은 폐역이다. 폐역이 됐지만 여전히 아기자기한 간이역 모습으로 열려 있다. 역사 안은 대합실과 역무실이 잘 보존돼 있다. 기차가 오가던 그때 그 시절 시간표와 요금표도 시간이 멈춘 채 그대로다. 철길에 멈춰선 기차 두 량은 '유정 북 카페'와 관광안내소로 변신했다. 누구나 앉아 책을 읽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열차 내 선반에는 강원문인협회가 기부한 2000여 권의 책과 옛 김유정역 사진 등으로 채워졌다. 역 부근 소설가 김유정이 지낸 마을이자 소설의 배경이 된 실레마울도 한 바퀴 둘러볼 만하다.



사진: 춘천시

##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제가 사는 제주 서귀포시에는 오름이 많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오름에 갔다가 종가시나무에서 장수풍뎅이가 짝짓기 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나무즙을 먹고 있는 암컷에게 수컷이 다가가 짝짓기를 하더군요. 몸집이 작은 다른 수컷은 근처에서 옆선거리기만 하고요. 코뿔소처럼 긴 뿔, 윤기 나는 갈색에 갑옷 같은 몸. 가까이서 본 장수풍뎅이 수컷은 매력이 넘쳤습니다.

박경숙 제주 서귀포시

## 공감 칭찬 합니다!



770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생산·판매하는 뮤지엄 굿즈(굿즈) 기사를 읽으면서 눈이 호강했어요. 화사한 핑크색을 내뿜는 백제 금동대향로, 차분한 하늘색 반가사유상 등 익숙했던 우리 문화재를 재해석해 상품으로 내놓는 아이디어가 신선했어요. 업무상 외국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굿즈 상품을 선물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많이 소개해주세요.

유승연 서울 강남구




769호 2024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정식을 갖고 결전지 파리로 떠나며 선전을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간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패럴림픽이 장애 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는 무대가 되길 응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

박순화 강원 동해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http://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https://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http://blog.naver.com/mcst_pr)

 [facebook.com/wegonggam](https://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https://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http://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5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mailto: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함께 숙박 걱정없이 국내여행 떠나세요!

발급기간

준비된 쿠폰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2024. 8. 27 (화) ~ 9. 29 (일)

\*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발급

입실기간

9. 9 (월) ~ 10. 13 (일)

사용지역

비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할인혜택

7만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

7만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

\* 단, 부가세 포함 2만원 이상 숙박상품 구매 시

7만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0,000↓

7만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0,000↓

사용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받기가고 싶은  
국내 숙박  
선택하기숙박  
할권으로  
할인받기안전하고  
행복한  
국내여행  
즐기기

숙박 할인권 발급 가능 온라인 여행사

콜스테이, 넥스투어, 놀이의발견, 데이오프, 땡큐캠핑, 떠나요닷컴, 마이리얼트립, 맘맘, 반려생활, 버틀러라운지, 스테이앤모어, 스테이폴리오, 쏘카, 아놀자, 여기어때, 오늘밤엔, 옥션, 올마이투어닷컴, 웹투어, 위홀, 인터파크, 제주닷컴, 지마켓, 카모아, 카카오톡 예약하기, 투어비스, 트리플, 트립비토즈, 트립토파즈, 편앤비즈, 페텔, 프리비아, 하나투어, 한투어, 호텔엔조이, 호텔패스, 11번가, TTB

\* 상황에 따라 참여사 등 일부 내용 변동 가능



# 정책퀴즈

2024.9.9.(월) ~ 9.22.(일)

01

지난 7월, 이 나라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 폴란드 ☐ 체코 ☐ 카타르 ☐ 영국

02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것으로,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놀봄학교 ☐ 행복학교 ☐ 희망학교 ☐ 기쁨학교

03

올해 5월부터 시행돼 대중교통비 절감은 물론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큰

대한민국 대표 교통카드는 무엇일까요?



☐ A-패스 ☐ E-패스 ☐ K-패스 ☐ X-패스

0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잡지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쉽게 안내하는  
정책주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코리아플러스 ☐ 위클리공감 ☐ 공감 ☐ K-공감

- 참여방법 : K-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에서 참여
- 참여기간 : 2024년 9월 9일(월) ~ 9월 22일(일)
- 결과발표 : 2024년 9월 25일(수) / K-공감 누리집

300명  
증정



아메리카노 1잔

